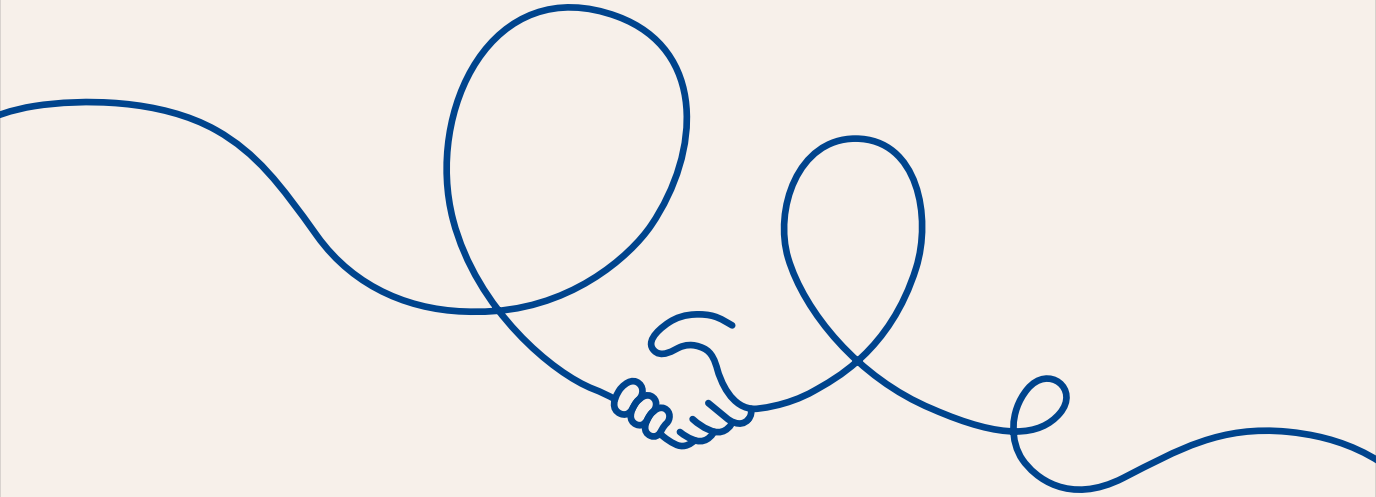
현대차그룹 대학생 교육봉사단
H-JUMP SCHOOL IMPACT REPORT

사람과
사람,
나아가



사람과
미래를
잇다

HYUNDAI MOTOR GROUP 서울장학재단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대구광역시서구청 JUMP

사람과
사람,
나아가

사람과
미래를
잇다

Contents

1. Intro
교육 선순환의 여정을 시작하다

현대자동차그룹 대학생 교육봉사단 H-점프스쿨 — 06
프로그램 소개
나눔의 선순환
성장의 지향점 — 08
미션 및 비전
함께 만드는 사람들 — 09
주최기관 소개
공정한 교육을 위한 발자취 — 10
H-점프스쿨 타임라인
연혁
H-점프스쿨 성장과 성과
협력 기반 교육모델의 확산

2.
모두를 위한 교육, 어떻게 가능할까?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 18
교육이 만드는 세상
H-점프스쿨의 교육모델
H-점프스쿨의 교육나눔 활동 — 20
활동의 요소
기존 교육나눔 활동과의 차별점
장학샘
소프트스킬
장학금 제도가 학생들의 학업과 삶에 미치는 기대효과
공정한 배움의 기회 — 30
미래세대의 변화
진로결정
지역에서 뿌리내리는 성장 — 36
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의 부상
H-점프스쿨 학습센터 운영 현황
학습센터 담당자가 느끼는 H-점프스쿨에 대한 만족도

협력으로 공정한 교육의 미래를 일군 이야기

3.
교육의 혁신동력, H-점프스쿨이 만든다

성장의 선순환을 만드는 교육 — 46
미래인재 양성
멘토링
멘토링 통계
멘토 소개
멘토링 유형
글로벌 인재로의 도약 — 54
리더십 강화
운영진 활동
키워드로 보는 운영진 활동
글로벌 경험

4.
함께 하는 교육, H-점프스쿨이 짓다

함께 만드는 교육의 미래 — 62
다자 간 민관협력
협력의 롤모델
H-점프스쿨에게 한 마디 — 65
5년 후가 기대되는 H-점프스쿨
살롱드점프가 말하다: 교육 선순환의 원동력
H-점프스쿨이 만들어갈 길 — 72

현대자동차그룹 대학생 교육봉사단 H-점프스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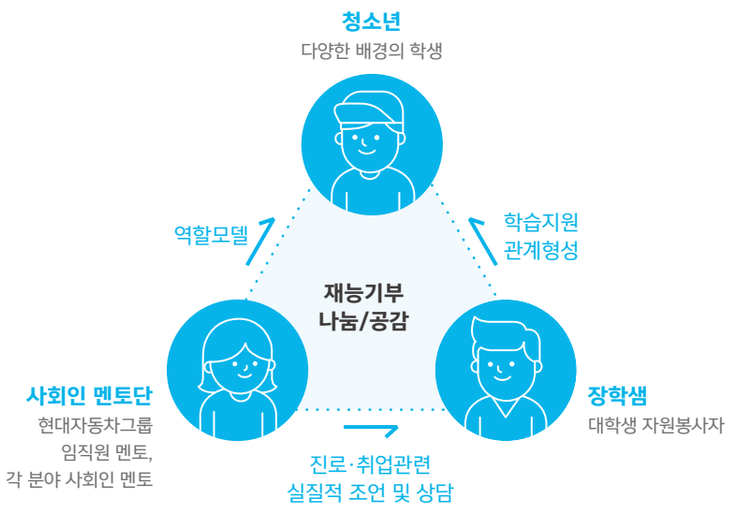
프로그램 소개

현대자동차그룹 대학생 교육봉사단 H-점프스쿨은 현대자동차그룹, 서울장학재단,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와 사단법인 점프가 함께하는 민관학 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입니다. 교육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실행을 통해 참가자 전원이 성장하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H-점프스쿨이 지향하는 바는 청소년-대학생-사회인 멘토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겨나는 나눔의 선순환입니다. 극심해지는 교육 격차, 그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우수한 대학생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에게 맞춤형 학습지도를 제공합니다. 눈높이 학습지도를 통해 기초학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1년이라는 긴 시간을 호흡하기에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듯 청소년에게 단순 교육 제공자가 아닌 한 명의 멘토로 다가가는 대학생들은, 그 자신이 사회인 멘토단의 멘티가 되기도 합니다. 대학생 봉사자들은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사회인 선배들이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진로나 사회진출에 관한 실질적 조언 및 상담을 받습니다.

'청소년-대학생-사회인 멘토'를 주축으로 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모든 주체는 나누는 동시에 배움을 얻는 '선순환의 고리'를 이룹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실현에 기여합니다.

나눔의 선순환



H-점프스쿨은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과 함께 합니다.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학습지원을 받아, 차근차근 지역사회의 미래인재로 성장해나가게 합니다. 이런 성장을 위하여 H-점프스쿨은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학습지원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진로 고민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진로에 더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적성과 부합하는 진로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청소년의 정서적 성장까지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은 각자 자신이 지닌 고민을 바르게 해소하며 바람직한 인재로 성장해갑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서울장학재단,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가 후원하는 장학생이자, 각 지역의 학습센터와 학교에서 청소년들 지도하는 선생님을 일컬어 H-점프스쿨의 '장학샘'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장학샘들은 10개월 간 청소년들의 기초학력 증진에 힘쓸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자가 되어 청소년의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나아가 장학샘은 청소년의 롤모델 역할을 수행합니다.

장학샘들에게는 현대자동차그룹 임직원 및 각 분야 전문가 멘토링과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청소년들에게 멘토가 되는 장학샘들은 그 자신이 전문가들의 멘티가 되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나눔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H-점프스쿨 안에서 모든 주체는 함께 성장합니다.

H-점프스쿨은 대학생 창의인재 양성과 청소년 교육격차 해소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해 점진적으로 지역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기 '대구'와 5기 '부산'에 이어 H-점프스쿨의 비전에 공감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나눔의 선순환 모델을 확산해나갈 것입니다.

성장의 지향점

현대자동차그룹 대학생 교육봉사단 H-점프스쿨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주체들은 아래와 같은 미션과 비전에 공감합니다. H-점프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돌아가는 사회를 꿈꿉니다.

미션 및 비전

H-점프스쿨은 누구나 차별없는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성장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공정한 교육기회

H-점프스쿨은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꿈을 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의 장 제공

H-점프스쿨은 대학생들이 균형잡힌 인재로 발돋움할 수있도록 다양한 경험의 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협력

H-점프스쿨은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 만드는 사람들

주최기관 소개

현대자동차그룹 대학생 교육봉사단 H-점프스쿨은 현대자동차그룹과 서울장학재단,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대구 서구청, 사단법인 점프가 함께 하는 다자간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교육 사회공헌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각 주체는 각자의 노하우와 섹터 간 협력을 통해 미래세대의 성장과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꾸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H-점프스쿨을 주최합니다.

서울장학재단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서울장학재단이,
미래인재 누구나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H-점프스쿨을 주최합니다.

경북대학교
진리·긍지·봉사의 정신을 실천하고, 학생들이 대구 지역사회와 더불어 나누며 전진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경북대학교에서, H-점프스쿨을 주최합니다.

부산대학교
진리·자유·봉사의 이념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부산 지역사회의 발전과 나눔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산대학교에서, H-점프스쿨을 주최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청
참된 봉사와 따뜻한 복지를 바탕으로 도시의 미래 기반을 구축하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에서, 청소년과 장학샘을 미래인재로 양성하는 H-점프스쿨을 주최합니다.

사단법인 점프
사단법인 점프는 취약계층·이주배경 청소년의 학력 증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대학생 교사들을 육성 및 파견하는데 힘쓰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며, H-점프스쿨을 주관합니다.

지역사회 복지기관 및 학교
H-점프스쿨의 취지에 공감하는 각 지역사회의 복지기관과 학교는 파견된 장학샘들이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멘토링을 제공할 수 있도록, H-점프스쿨을 지원합니다.

공정한 교육을 위한 발자취

H-점프스쿨 타임라인

H-점프스쿨의 1년은 푸른 여름에 시작해 다시 그 여름이 돌아올 때까지 이어집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청소년과 장학샘, 학습센터와 함께 가기 위하여, H-점프스쿨은 매년 일련의 활동 흐름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득가득 채워온 날짜가 모여, 어느새 다섯 번째 돌아온 여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현대차그룹 대학생 교육봉사단 H-점프스쿨은 592명의 장학샘과 2,225명의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에는 많은 이들의 이야기와 응원이 담겨 있습니다. H-점프스쿨은 함께 한 모든 이야기를 잊지 않고,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다시 나아갈 것입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교육봉사	학습센터 선정 장학샘 선발 및 교육	발대식 	교육봉사 활동				중간 워크숍활동 및 보수교육 / 인원 충원		교육봉사 활동 				활동 종료 및 8월 수료식 준비
멘토링	멘토단 구성		결연	멘토링 활동 			멘토링 활동 	일대일 멘토링					
역량강화	운영진 활동(기장/부기장/교육팀/홍보팀)						운영진 활동(기장/부기장/교육팀/홍보팀)						
		장학샘 활동 안내 및 교육	센터별 간담회 문화예술 이벤트 				장학샘 멤버쉽 트레이닝 인문학 특강 		센터별 간담회 문화예술 이벤트				

연혁

2018

07
현대차그룹 –
부산대가 함께하는
<H-점프스쿨 부산> 협약

08
4기 장학샘 제자사랑
장학기금 <푸른-샘
청소년 장학금> 전달,
H-점프스쿨 4기 활동 수료(125명),
5기 활동 시작(201명)

02
청소년-장학샘-임직원
멘토가 함께하는 진로
소그룹 멘토링 개최

06
- H-점프스쿨 5기 활동 수료 (201명)
- H-점프스쿨 5기 해외탐방 및
  글로벌 멘토링 개최 (미국 서부 / 20명)
- <2018 NBM : New Business Model
  국제 컨퍼런스 / 불가리아 소피아> 우수사례 발표

07
<EU 집행위원회 : 사회적경제
유럽 컨퍼런스 / 벨기에 브뤼셀>
우수사례 발표

08
H-점프스쿨 대구
5+기 발대식

2017

06
H-점프스쿨 4기
해외탐방 및
글로벌 멘토링 개최
(미국 서부 / 13명)

03
학습센터 담당자 재충전
워크샵 개최

02
청소년 진로멘토링
<일깨워Dream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견학> 개최

01
청소년 겨울방학 프로그램
<청소년 코딩교실> 등 개최

08
- 현대차그룹 –경북대학교가 함께하는
  <H-점프스쿨 대구> 협약 체결
- H-점프스쿨 3기 활동 수료(100명)
- H-점프스쿨 4기 활동 시작(125명)

2016

09
2015년 H-점프스쿨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12
현대차그룹 문화예술
공연지원 :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관람

01
청소년 겨울방학 체험 프로그램
<양떼목장 겨울캠프> 등 개최

05
H-점프스쿨 장학샘
활동 가이드북 및
멘토 가이드북 발간

07
H-점프스쿨 3기 해외탐방 및
글로벌 멘토링 개최
(미국 동부 / 10명)

2015

08
- H-점프스쿨 2기
  활동 수료(75명)
- H-점프스쿨 3기
  활동 시작(100명)

06
H-점프스쿨 2기
해외탐방 및
글로벌 멘토링 개최
(미국 동부 / 8명)

01
- 현대차그룹 문화예술 공연지원
  : 뮤지컬 <라카지> 관람
- 청소년 겨울방학 체험 프로그램
  <부산 기차여행> 등 개최

11
- 2014년 H-점프스쿨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 토크콘서트 강연
- 살롱드점프(Salon de JUMP) 런칭

2013

08
- 현대차그룹 – 서울장학재단
  <H-점프스쿨> 협약 체결
- H-점프스쿨 1기 (50명) 활동 시작

2014

02
H-점프스쿨 1기
인문학특강

05
H-점프스쿨
멘토-장학샘이
함께하는 1기의 밤

07
H-점프스쿨
운영매뉴얼 발간

08
H-점프스쿨 1기
해외탐방 및
글로벌 멘토링 개최
(미국 동부 / 장학샘 5명, 청소년 5명)

09
- H-점프스쿨 1기
  활동 수료(50명)
- H-점프스쿨 2기
  활동 시작(75명)

H-점프스쿨 성장과 성과

H-JUMP SCHOOL

5년

장학샘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사회인멘토	파트너
자존감 장학금	사교육비 절감 성적향상	비용절감 지속가능성	동기부여	CSR
소프트스킬 미래인재	정서적 건강 롤모델 진로설정	안정적 프로그램	내적성장	건강한 파트너십

누적 장학샘 인원
592명

누적 청소년 인원
2,225명

누적 학습센터
120개소

누적 장학샘 활동시간
186,880시간
(주 8시간 10개월, 1기 주 12시간, 5+기 주 8시간 5개월)

누적 청소년 학습시간
699,200시간
(주 8시간 10개월, 1기 주 12시간, 5+기 주 8시간 5개월)

누적 청소년 사교육비 절감
11,187,200,000원
(시간당 과외비용*청소년 학습시간)

대학생 진로 절감비용
1,714,500,000원
(대학생 취업 컨설팅 비용 30만원/월* 활동개월 * 대학생 수/
[대통령직속 청년 위원회] 취업 사교육 비용 월 평균 30만원)

지역아동센터 강사채용비 절감
1,812,736,000원
(아동복지교사 시간당 급여 * 장학샘 활동시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교사 급여기준
전일 근무교사 월 급여 97만원 / 월 근로시간 100시간 / 시간당 9천 7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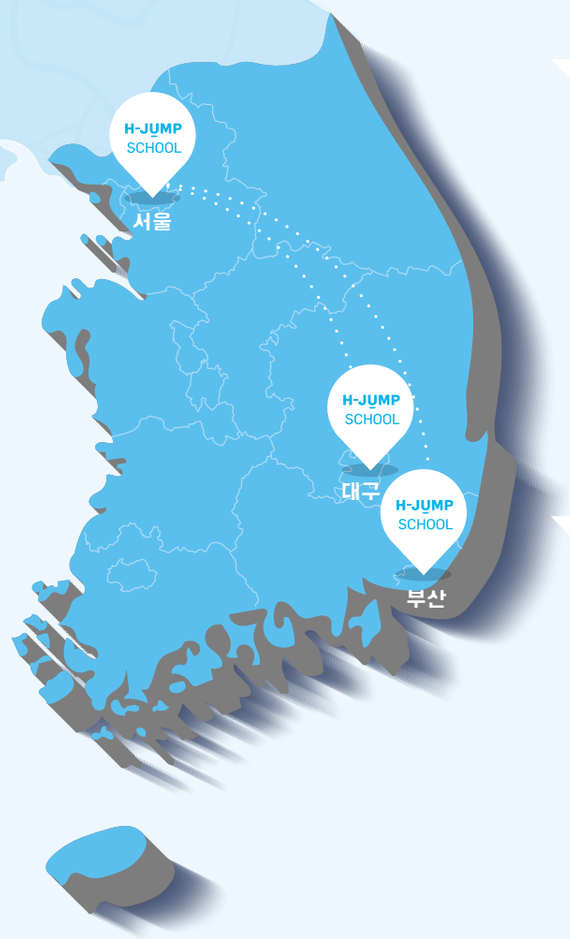
일대일멘토링 매칭수
409그룹

소그룹멘토링 누적
119회

살롱드점프 누적
22회

사회인 멘토링 전체 누적
550회

협력 기반 교육 모델의 확산



협력모델의 확장

H-점프스쿨은 대학생 창의인재 양성과 청소년 교육격차 해소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해 점진적으로 지역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첫걸음을 뗀 이후로 3년간 현대차그룹-서울장학재단-점프의 협력모델에서 4년차에는 현대차그룹-대학교-점프 협력모델로 확장되었습니다.

지역으로 확산

4년차에 접어든 2016년에는 경북대학교, 대구 서구청과 협력하여 대구지역으로 H-점프스쿨을 정착시켰으며, 연이어 5년차에는 대구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입어 부산대학교와 협력하여 부산지역으로 진출하며 플랫폼으로써 성장가능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H-점프스쿨의 비전에 공감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나눔의 선순환 모델을 확산해나갈 것입니다.

H-점프스쿨 '청소년-장학샘-사회인 멘토'가
함께 하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견학 & 멘토링

일깨워 Dream!

현대자동차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점'에 관한 강연을 듣고 나의 강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배움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 간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가고 싶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권유하고 싶습니다.

by. 부산 범일지역아동센터 청소년

2016년부터 2년 연속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견학하고 현직 임직원 멘토님들과의 단체 멘토링까지 할 수 있었어요! 학습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학샘-청소년이 함께 울산까지 소풍가는 마음으로 다녀왔답니다. 자동차가 어떤 과정으로 제작되는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거기에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임직원 멘토님들의 단체멘토링까지 더해졌어요. 멘토님들과의 진솔한 멘토링을 통해 저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항상 교실 안에서만 수업했던 멘티들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함께 오고 또 견학하면서 교실 안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접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by. 대구 경일중학교 장학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방문

2. 모두를 위한 교육, 어떻게 가능할까?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H-점프스쿨의 교육나눔 활동
공정한 배움의 기회
지역에서 뿌리내리는 성장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교육이 만드는 세상

우리 사회, 나아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회문제가 존재합니다. H-점프스쿨에 참여한 파트너들이 그중에서 교육 불평등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미래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회나 교육은 그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에게 지식과 지혜, 문화를 전달하는 귀중한 수단입니다. 교육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더 많은 기회를 가진 사람만 미래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H-점프스쿨의 파트너들은 모든 다음 세대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같은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이 나아진다고 믿습니다.

02 **우리 사회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사람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겪은 우리나라는 잿더미 속에서 오직 사람의 힘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경제 성장으로 자원과 자본이 늘어났지만 반대급부로 빈부격차와 기회의 불평등, 이기주의는 심화하였습니다. 자원과 자본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인재는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03 **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 개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촉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H-점프스쿨의 장점은 교육을 목적이 아닌 삶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개인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학생은 여러 이유로 학습능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는 많은 시도는 성적이라는 미시적 결과를 평가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에게 집중하거나 교육의 본질을 벗어나 또 다른 경쟁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H-점프스쿨은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청소년이 자기 속도로 삶을 준비하도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04 **H-점프스쿨에서는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 H-점프스쿨을 시작할 때는 청소년이 대학생에게, 대학생은 사회인 멘토에게 배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5년간 지켜본 결과 대학생은 청소년, 사회인 멘토는 대학생과의 만남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대해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누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경험이 대학생, 청소년, 학습센터, 멘토들에게는 H-점프스쿨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H-점프스쿨의 교육모델

H-점프스쿨이 대한민국의 대표적 교육나눔 활동으로 자리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을 연결하고, 참여한 주체 전원이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서울장학재단,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대구 서구청과 사단법인 점프가 민관학 협력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나아가 청소년들에게는 장학샘을, 장학샘들에게는 사회인 멘토를 연결해 참여주체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롤모델을 제시합니다. 이 같은 운영 주체의 구성방식은 'Co-growth 모델'과 'Chain-growth 모델'로 분류됩니다.

Co-growth 모델

H-점프스쿨은 각각의 주체가 함께 성장하는 데 큰 의의를 둡니다. 5년동안 592명의 장학샘이 2,225명의 청소년과 함께 호흡하며 학습지도와 멘토링을 해왔습니다. 또한, 210명의 현대차그룹 임직원/사회인 멘토들이 청소년과 장학샘의 성장과 변화를 응원했습니다. H-점프스쿨의 각 주최기관(현대차그룹, 서울장학재단,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대구 서구청)과 청소년들, 장학샘들을 돕는 학습센터와 학교가 없었다면 5년 동안 H-점프스쿨을 지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바퀴가 서로 맞물려야만 나아가는 자전거처럼, H-점프스쿨은 구성원끼리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시에 빛나게 해주는 존재로 성장해왔습니다.

Chain-growth 모델

기존의 교육봉사 프로그램과는 달리 H-점프스쿨은 청소년들에게는 장학샘을, 장학샘들에게는 사회인 멘토를 연결함으로써 주체들의 참여가 계속되도록 디자인됐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주체에게 동기부여 요소를 부여함으로써, 모든 주체의 성장이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롤모델 제시'와 '교육 주체의 장기적 참여'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Chain-growth 모델이 활성화됩니다.

알럼나이 이야기!

김재원 알럼나이 출신 매니저

협력속에서
미래의 희망찾기

이전에는 장학샘과 청소년들, 그리고 사회인 멘토님들과 현대차그룹, 서울 장학재단, 경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에 속한 모든 분이 각각 점으로 존재했죠. 이제는 이들이 H-점프스쿨이라는 이름의 선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교육불평등 해결이라는 미션으로 묶였을 때 시너지가 엄청나다는 걸 느껴요. 시너지를 바탕으로 장학샘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청소년들은 그런 장학샘을 보고 롤모델로 삼으면서 노력하게 되요. 사회인 멘토들은 장학샘들과 청소년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미래의 희망을 되새기는 게 H-점프스쿨의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H-점프스쿨의 교육나눔 활동

활동의 요소

학습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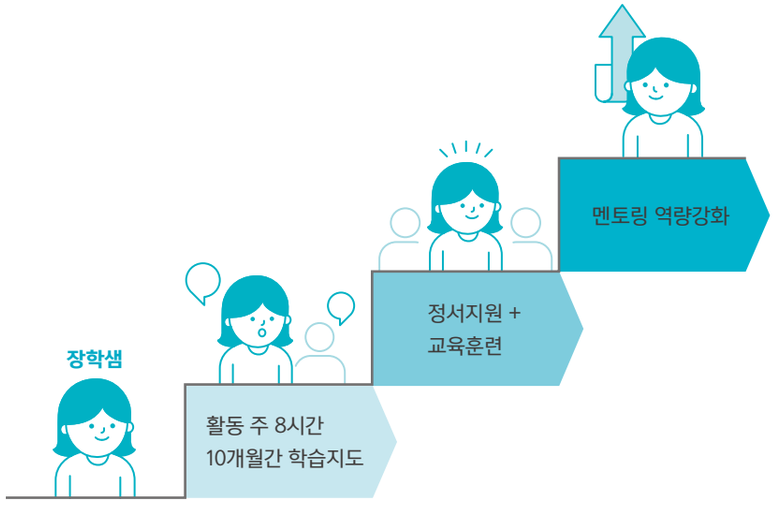
장학샘(대학생 교육봉사자)은 10개월 동안 청소년들과 호흡하며 주 8시간씩 학습지도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장기적, 주기적 학습지도를 통해 청소년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흥미와 동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자신의 목표와 꿈을 실현하도록 돕습니다.

정서지원

장학샘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고민 상담과 진로탐색 및 설계 등을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친형제/자매 같은 따뜻함과 친밀성이 생깁니다. 또한, 장학샘은 청소년의 태도 개선 및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는 등 청소년의 롤모델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눔의 선순환

H-점프스쿨은 청소년-대학생-사회인 멘토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에 대한 나눔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극심해지는 교육 격차, 그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우수한 대학생 인재를 선발하여 지역사회의 취약계층·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에게 맞춤형 학습지도를 제공합니다. '청소년-대학생-사회인 멘토'를 주축으로 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모든 주체는 배움을 나누는 동시에 얻기도 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실현에 기여합니다.



기존 교육나눔 활동과의 차별점

동료 장학샘 제도

동료 장학샘 제도 운영

H-점프스쿨은 동료 장학샘들이 서로 공감하고 의지하며 활동하도록 한 학습센터에 최소 3명 이상을 파견합니다. 또한, 그 구심점이 되는 학습센터 대표 장학샘을 1명씩 두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장학샘 86.5%가 동료 장학샘과의 관계가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활동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습센터 직접 선발

학습센터에서 장학샘 선발에 직접 참여

장학샘은 교육에 대한 기본 소양만큼이나 학습센터 현장에 맞는 성향 및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학샘 본인의 역량이 교육자로서의 면모와 만날 때 현장에서의 교육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면접심사 때 학습센터 대표/담당자 1명이 함께 활동할 장학샘 선발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원자의 역량을 살펴봅니다.

H-JUMP SCHOOL 교육봉사 차별점

교육 훈련

오리엔테이션, 보수교육, 중간워크샵 등 교육훈련 제공

H-점프스쿨 장학샘들은 활동 시기에 맞춰 선생님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습니다. 활동 전에는 사전교육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동이 시작된 후에는 교수법 위주의 심화교육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시 다지며 활동 후반에 돌입하도록 중간워크샵도 실시합니다.

활동보고서 제도

사무국과의 소통 및 활동기록의 중요성과 우수 활동보고서 발췌

'활동보고서'는 매주 장학샘들이 작성하는 활동에 대한 기록장소이자, H-점프스쿨 사무국과 장학샘 간의 소통창구입니다. 장학샘들은 한 주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작성하는 활동보고서를 통해 본인의 활동을 수시 점검합니다. 활동 중 생기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과 소통하며 문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갑니다.

장학샘

장학샘은 장학생과 선생님의 합성어로, 청소년들과 지식을 나누며 성장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입니다. 현대차그룹과 서울장학재단,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대구 서구청이 후원하는 장학생이면서 H-점프스쿨 학습센터에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는 열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청년들입니다.

장학샘 기본 통계

총 수료인원
592명

수료율
92%

프로그램 만족도
95%

주변에 추천한다
90.8%

참여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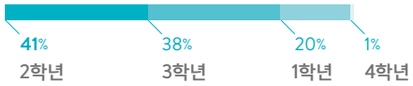
1위 교육봉사를 통해 청소년에게 경험을 나누어주고 싶어서

2위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싶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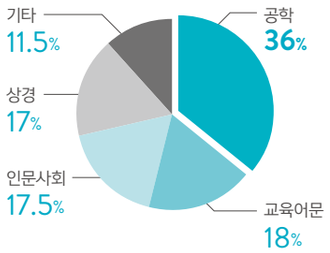
3위 H-점프스쿨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

성비 - 여/남
49% / 51%

참여 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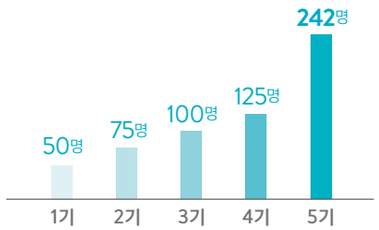
장학샘 전공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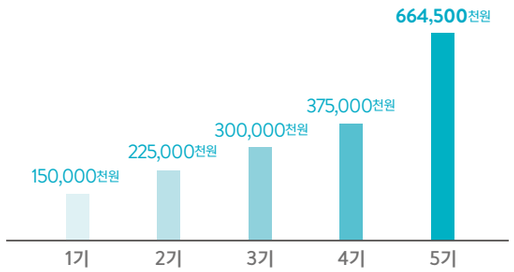
장학샘 성과

누적 장학샘 인원
592명

누적 장학샘 활동시간
186,880명
(주 8시간 10개월, 1기 주 12시간, 5+기 주 8시간 5개월)



대학생 진로 절감 비용
1,714,500,000원
(기준: 대학생 취업 컨설팅 비용 30만원/월 * 활동개월 * 대학생 수/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취업 사교육 비용 월 평균 30만원)



장학샘의 내적 성장

많은 장학샘이 활동을 종료하고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가 확장된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나눔 활동을 하면서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회에 기여, 학습 및 실천의 기회와 기술과 능력을 적용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학샘들은 실제로 인성, 자아효능감,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등 여러가지 항목에서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장학샘들이 느끼는 자신의 변화

인성 95.5%

자아효능감 96.7%

스스로에 대한 신뢰 96.1%

성실성 95.5%

다른 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지 95.6%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
90%

H-점프스쿨 알럼나이의 90%가 교육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연결되어 있기에 개인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는 분리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필수입니다.
H-점프스쿨은 교육봉사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의 모습에 눈을 뜨게 하며,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재능과 노력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알럼나이란?** H-점프스쿨 활동 수료생을 일컫습니다. 활동 종료 후에도 사회인 멘토링과 후배 장학샘들을 위한 행사에 참여합니다. 직접 사회인 멘토가 되어 멘토링에도 참여하는 나눔의 선순환 활동을 이어나가는 이들입니다.

소프트 스킬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식의 기억과 측정에 여전히 큰 비중을 두고 전통적인 교수·학습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스스로 학습하며 창의성을 발휘하는 인공지능을 관리할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식 기반의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식(knowledge & intelligence)을 대신할 대안으로 '소프트 스킬(soft skills)'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500대 기업 CEO들에 대한 스탠포드 연구소와 카네기 재단의 연구 결과에서도, 조직 내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소프트 스킬을 꼽았습니다. 성공한 CEO들의 약 75%가 소프트 스킬이 뛰어난 반면, 나머지 25%가 인지/전문 스킬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프트 스킬은 기술적 능력이나 실제적 지식 이외에 협업 능력, 책임감,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등 정서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대학생을 미래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H-점프스쿨 활동이 소프트 스킬 향상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기업 차원에서 아래의 6가지 영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알럼나이의 소프트 스킬 상승이 취업 및 사회생활에 끼친 영향

취업
85.71%

"취업 시 단체 면접이나 개별 과제를 수행할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회생활
90.32%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늘고 주변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알럼나이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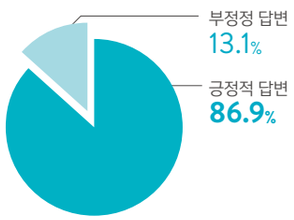
일반 대학생의 취업률과 비교했을 때 H-점프스쿨을 수료한 알럼나이의 취업률이 12% 더 높았습니다. 소프트 스킬 상승과 취업과의 상관관계는 H-점프스쿨의 목표인 미래인재 양성의 결과를 방증합니다.

알럼나이 취업률
77.1%

일반 대학생 취업률
64.3%

나눔의 선순환에 동참하는 알럼나이

향후 멘토활동을 희망합니다!
8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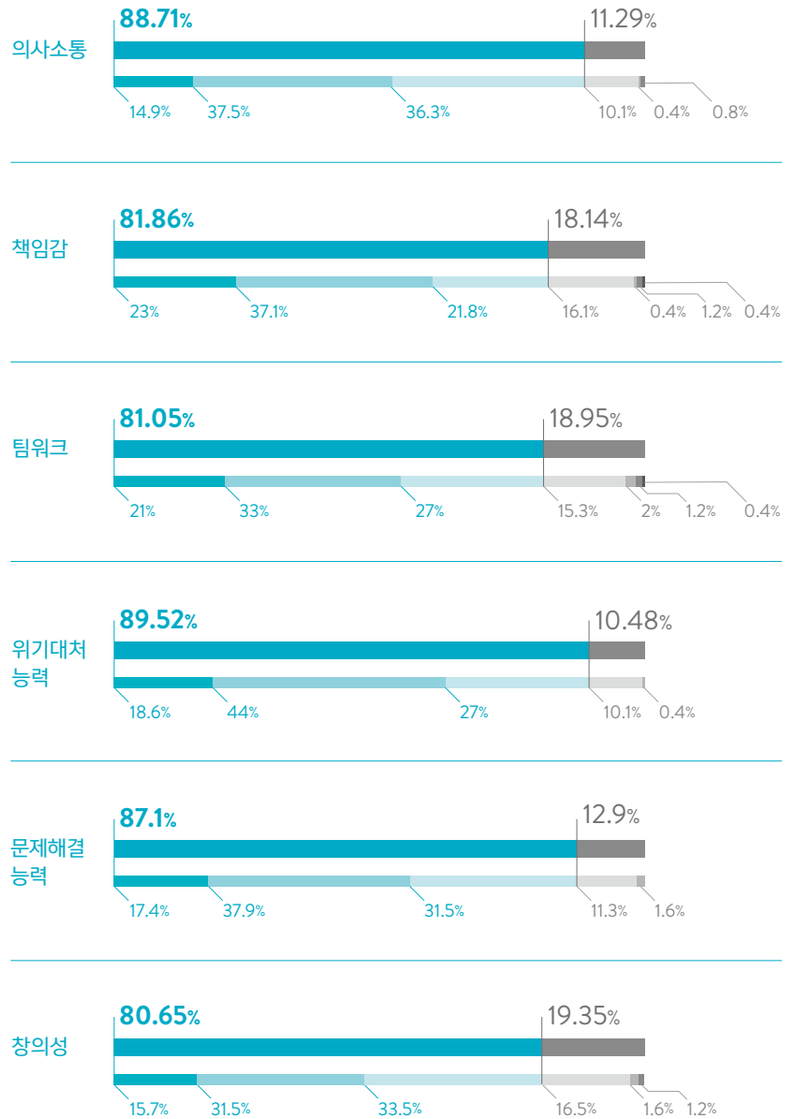
멘토에 지원했어요!
19명

멘토활동 중이에요
12명

소프트 스킬의 성장 여부

조사항목은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선정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80% 이상의 장학샘들이 의사소통, 책임감, 팀워크, 위기대처능력, 창의성이 성장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성장한 능력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85.72%,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90.32%에 달했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장학샘들도 H-점프스쿨의 활동을 통해 협업 능력, 책임감,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등 여러 정서적 영역의 소프트 스킬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프트 스킬의 상승 결과



장학금 제도가 학생들의 학업과 삶에 미치는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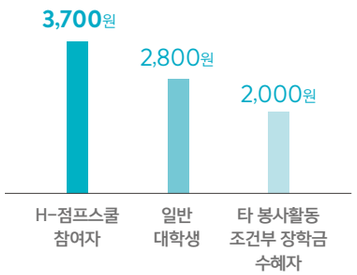
대부분의 장학금 정책은 성적을 기반으로 수혜되어 고등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고등 교육의 수혜를 평등하게 분배하겠다는 장학금 제도의 원래 취지와 어긋납니다. 동경대학교 경제학과의 사와다 야스유키 교수와 심승규 교수는 H-점프스쿨의 장학금 제도가 학생들의 학업활동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태도나 삶의 총체적 변화를 살펴보고,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H-점프스쿨 장학샘들에게서 타 봉사활동 조건부 장학 프로그램의 참여자에 비해 사회기여 행동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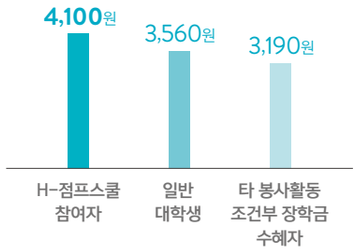
대상 H-점프스쿨 참여자, 일반 학생, 타 봉사활동 조건부 장학금 수혜자

실험방식 각 대학생들에게 5,000원씩을 제공하고 기부정도를 가늠하는 경제학적 게임 진행

5,000원 중 복지기관에 기부하려는 금액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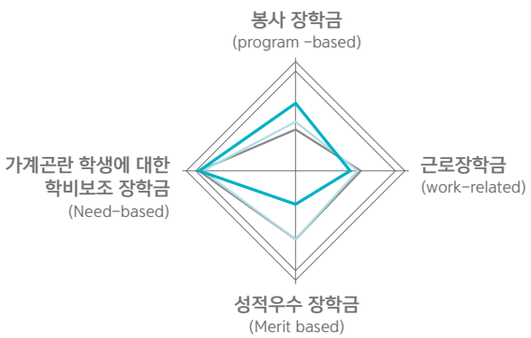
5,000원 중 어려운 아동을 위해 기부하려는 금액 조사



두 번째 실험

대상 H-점프스쿨 참여자, 일반 학생, 타 봉사활동 조건부 장학금 수혜자

설문 1) 성적우수 장학금, 가계곤란 학생 학비보조 장학금, 봉사 장학금, 근로 장학금 선호도 조사
2) 각 장학금이 공동체의 분배문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질문



실험 결과

H-점프스쿨을 통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타 장학금 프로그램 참여자에 비해 20% 이상의 높은 금액을 기부하며 사회 기여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H-점프스쿨 참여 장학샘은 봉사활동 조건부 장학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효과성, 사회분배 문제에 대한 기여 등 봉사활동 조건부 장학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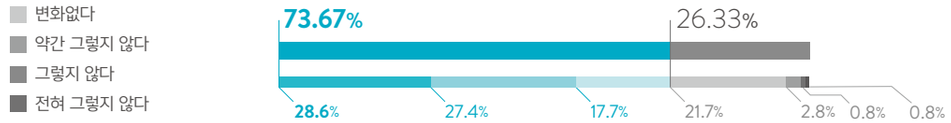
이를 통해 H-점프스쿨 장학샘은 일반 대학생 및 타 장학금 프로그램 참가자와 비교하여 높은 공공성과 이타심으로 사회에 기여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공정한 교육기회를 나눈다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학금의 사용처

현대차그룹-서울장학재단-경북대학교-부산대학교와 함께 하는 H-점프스쿨은 활동종료 시점에서 장학샘들이 학업을 지속하도록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이는 활동비의 개념이 아닌, 장학샘들이 성장하게 돕는 발판이자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지지대의 역할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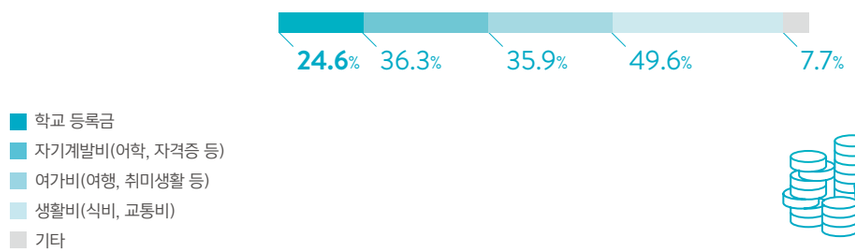
H-점프스쿨 장학금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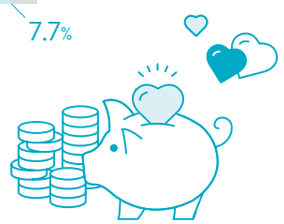
73.67%



H-점프스쿨 장학금은 어떻게 쓰였나요?

학교등록금 24.6%





장학샘 수기

장학샘으로서의 1년, 나를 뛰어넘은 시간

김대진 장학샘

부산 문현지역아동센터 동료 장학샘들과 경주에서

첫 번째 JUMP

내면의 고민을 뛰어넘다

2017년의 여름, 학교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들어가 드러눕는 제 습성에 지쳐갔습니다. '뭐라도 해 보자'는 생각으로 대외활동 블로그, 학교 홈페이지를 들락거렸죠. 그러던 중 눈에 띈 활동이 H-점프스쿨이었습니다. 내가 멘토로서 청소년들과 수업하면서 사회 각층의 멘토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보통 두 가지 활동을 하려면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데, H-점프스쿨은 두 활동을 함께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런 점에 끌려 '한번 해 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H-점프스쿨 관련 정보를 보면서 눈에 띈 문구가 있었습니다. "친오빠, 형 같은"이라는 말이었죠. 멘토로서, 선생님으로서의 나는 그려지지 않았지만 오빠, 형으로서의 나는 쉽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집이나 학교에서 누군가의 오빠 혹은 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원을 결심하기까지 나를 가로막았던 고민을 뛰어넘는 데에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렇게 오빠로서, 형으로서의 나를 글과 말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H-점프스쿨 장학샘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JUMP

동료 장학샘들에게 배우다

날씨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청소년들과의 수업이 버거웠음에도, 1년의 세월이 보람으로 가득 찬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활동을 동료 장학샘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바쁜 생활 중에서도 충실히 장학샘 활동에 임하고, 동료들을 응원해 주는 동료 장학샘들은 H-점프스쿨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가까운 멘토였습니다. 나는 나의 한계치를 명확히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노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 장학샘들을 통해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멋진 사람들과 의지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더 높은 곳으로 저 자신을 도약시킨 힘이었습니다.

세 번째 JUMP

멘토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내 삶을 고민하다

'과연 멘토링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멘토링부터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만남을 통한 배움이 주는 즐거움에 매료되었습니다. 멘토님들은 자신이 성공한 이야기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이야기해주셨고 우리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끌어내 주셨죠. 멘토님들의 그러한 노력 때문이었는지, 마음을 열고 참여한 멘토링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스스로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나는 이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고민을 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그 시작에 H-점프스쿨의 멘토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JUMP

더 큰 세상을 향해

저에게 H-점프스쿨은 그 자체로 '뛰어넘음'이었습니다. 활동이 마무리된 지금, 저는 세상을 향해 더 멀리 더 높이 뛰어 보고자 합니다. 장학샘 활동을 통해 얻은 나에 대한 확신, 누구보다 믿음직한 동료들. 더불어 멘토님들의 빛나는 눈동자에서 얻은 에너지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힘찬 도움닫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임직원 멘토, 장학샘, 청소년이 함께하는 진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 김대진 장학샘

공정한 배움의 기회

미래세대의 변화

H-점프스쿨은 세상의 모든 청소년이 공정한 경쟁의 출발선에 서는,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리며 성장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H-점프스쿨에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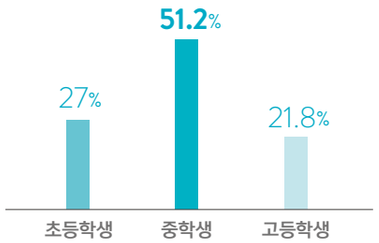
참여 청소년 기본 통계

참여 청소년 연령 분포

초등학생 27%

중학생 51.2%

고등학생 21.8%



누적 청소년 인원

2,225명

누적 청소년 학습시간

699,200시간

(주 8시간 10개월, 1기 주 12시간, 5+기 주 8시간 5개월)

청소년 사교육비 절감

11,187,200,000원

[통계청] 2016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7만 8천원 / 참여시간 6시간 / 시간당 1만 6천원 (주 8시간 10개월, 1기 주 12시간, 5+기 주 8시간 5개월)

성적 향상

성적 향상은 단순히 등수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성취감으로 이어지며, 앞으로 청소년들이 자라며 지닐 삶의 태도와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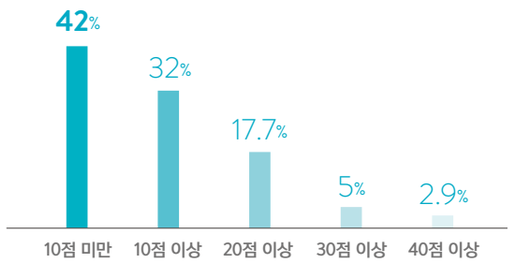
청소년들은 장학샘을 만나 이렇게 변했습니다.

성적 향상 73.5%

학습의지 향상 73.5%

집중력 향상 74.7%

점수대별 성적 증가 인원비



학년 별 평균 성적향상

초등 9.9점

중등 10.9점

고등 11.8점

과목별 평균 성적 향상

국어 7.5점

영어 11.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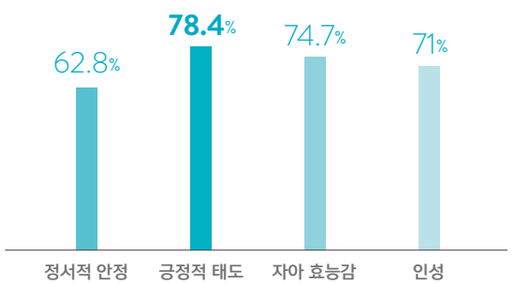
수학 8.8점

정서적 안정

정서적 안정은 성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특히 청소년들의 발달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정서적 안정 없이는 학습과 발달, 합리적 판단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서적 안정은 그 무엇보다 먼저 달성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청소년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또래어른인 장학샘들을 만난 청소년들은 자신의 변화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청소년의 심리발달 성과

긍정적 태도 78.4%



"속이 시원해지고 답답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도움 주는 사람으로 성장할 거에요"
"사람들과 여러 활동하며 많이 변했어요"

진로 결정

H-점프스쿨의 장학샘은 청소년과 성인의 중간에 선 입장에서 청소년들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그들의 행보를 응원해줍니다. 학습센터 안에서의 공부시간 외에 장학샘들과 청소년들은 소그룹 멘토링, 캠퍼스투어 등 즐거운 추억을 쌓았는데요. 청소년들이 참여한 프로그램 중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그래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청소년들이 꼽은 좋은 장학샘의 덕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H-점프스쿨 참여 청소년이 진로선택에 있어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가?

1위

H-점프스쿨 장학샘

27%

2위

부모님 · 형제

18%

3위

주변어른

11%

공동 4위

방송인 / 친구

9%

6위

선생님

6%

기타

20%

청소년이 생각하는 장학샘의 덕목

좋은 장학샘이란?

1위 눈높이에 맞춰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2위 내가 조금 느리더라도 기다려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선생님

3위 내 이야기를 잘들어주는 선생님

4위 이해심이 깊은 선생님

5위 시험기간 꿀팁을 주는 선생님

기타 정직하고, 아이들을 웃는 얼굴로 바라봐주는 선생님

쉬는 시간을 적절히 주는 선생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는 선생님

학생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성적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해주는 선생님

소통이 잘되는 선생님

가장 인상 깊었던 대답 장학샘 그 자체

H- 점프스쿨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것은?

1위 멘토링

- 사회인 멘토와 장학샘, 청소년이 함께한 소그룹 멘토링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견학

2위 장학샘과 함께 공부하고 고민 상담했던 시간

3위 센터 밖에서 장학샘과 함께 활동한 것

- 영화보기, 운동하기, 문화체험하기 등

4위 장학샘과 친해지는 시간

- 함께 놀고 간식먹는 것

5위 캠퍼스 투어(장학샘 모교 탐방 등)

후기

응원의 선순환을 꿈꾸며

송정의 청소년
꿈둥지지역아동센터

"시작은 미비했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이 창대하기 위해서는 저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낌없는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점프스쿨, 그리고 변혜림 선생님은 저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H-점프스쿨에 지원해 자신감이 없고 무력한, 시작이 미비한 아이들의 과정을 창대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변화된 저처럼 다른 친구를 응원할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후기

희망과 용기를 주고싶은 꿈

이은선 청소년
해피업지역아동센터

장학샘을 만나기 전에 저는 학교, 친구 관계, 가족들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놀림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 학교에 가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장학샘과 수업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밥을 먹는 등 여러 활동을 같이 하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학교, 가족, 친구에 대한 고민을 장학샘에게 털어놓으니 속이 시원해지고 답답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센터에 오는 것도 힘이 들어 일부러 저녁 시간이나 학습하는 시간에 맞춰 가곤 했습니다. 지금은 일찍 센터에 갑니다. 장학샘처럼 대학생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씩 도움을 줘, 저처럼 힘든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례

청소년 멘티에서 어엿한 장학샘으로

천나자 장학샘
경기글로벌센터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글로벌센터의 청소년멘티에서 시작해 장학샘으로 활동하고 있는 천나자입니다. 처음에 저는 대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전형방식이나 어떻게 공부를 해야하는지 막막했어요. 나중에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서 경영대학이나 국제통상학과 등의 상경대학 진학을 희망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러시아어도 할줄 아니까(우즈베키스탄 출신) 한국과 러시아 간에 발생하는 비즈니스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H-점프스쿨에서 장학샘을 만나고 진학하고 싶었던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대해 그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이건우 장학샘을 통해 입학 관련 브로셔도 받고, 실제 대학생활이나 지원 경쟁률 등에 대한 정보도 얻게 되었어요. 장학샘 선생님들과 외국인 전형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각종 활동증명서 구비 등을 함께 준비했어요. 홍련 쌤과는 면접심사를 대비하여 1대1 모의 면접까지 해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니었다면, 입학 준비를 이렇게 물 흐르듯 해낼 수 없었을 거에요.

사례

예술사진으로 일상에서 다름을 보다

성지연 멘토님과 함께한
<나는 사진작가입니다> 청소년 소그룹 멘토링

H-점프스쿨 5기 청소년과 사진을 활용한 소그룹 멘토링이 진행됐습니다. 일상 속에서 나를 찾고 나를 사진으로 표현해보는 청소년 멘토링. 사진이라는 친근한 매체로 나를 표현해보는 경험을 해본 청소년-장학샘들은 오롯이 나를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다고 합니다!

이태현 청소년
사진작가님이 자신의 작업과정이나 작품에 관해서 설명해주셔서 감명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가 가져온 물건이 모델이 되어 사진이 찍히는 것도 어디에서 체험하지 못할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H-점프스쿨 멘토링 프로그램에 예체능 활동이 추가돼 다른 친구들과 또 가고 싶습니다.

정혜인 청소년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했는데 멘토링을 통해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의미를 담은 적이 없었는데요. 멘토링 때 제가 좋아하는 사물들을 이것저것 들고 와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에 관심이 많아 궁금한 게 많았는데, 멘토링에서 궁금했던 것을 여쭤볼 수 있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지역에서 뿌리내리는 성장

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의 부상

전 세계적인 경제 양극화의 심화와 함께, 한국에서도 취약가정이나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는 아동·청소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Ⅲ(2012년, 이혜연, 박영균, 유성렬, 정선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이나 취약한 가족구조에서 성장한 아동·청소년은 열악한 가정환경 때문에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발달과업의 정상적 달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우리 미래 사회의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점프스쿨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기관 등 청소년 대상의 교육기관과 협력합니다. H-점프스쿨 사업의 핵심 참여 주체인 학습센터는 청소년들에게 삶을 스스로 변화시킬 용기가 생기도록 지역사회를 교육 차원에서 통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의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해당 교육기간마다 교육에 투여할 자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이에 H-점프스쿨은 공모를 통해 함께 할 학습센터를 모집하고, 대학생 교육봉사자를 파견하며 학습, 진로, 문화활동을 하도록 외부자원을 연계합니다. H-점프스쿨과 함께 청소년을 위해 호흡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학교의 담당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H-점프스쿨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청소년들의 곁에서 항상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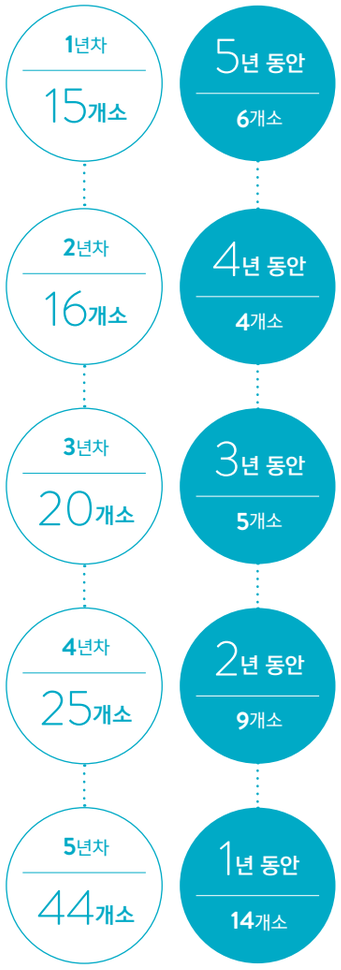
학습센터 기본 통계

지역 아동센터 강사 채용비 절감

1,812,736,000원

[아동복지교사 시간당 급여 * 장학샘 활동시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교사 급여기준
전일 근무교사 월 급여 97만원 / 월 근로시간 100시간 / 시간당 9천 7백원
(주 8시간 10개월, 1기 주 12시간, 5+기 주 8시간 5개월)]

H-점프스쿨 학습센터 운영 현황



5년 동안 함께한 학습센터 : 6개소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꿈나무지역아동센터, 번동5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보라매지역아동센터, 중계종합사회복지관, 파랑새지역아동센터

4년 동안 함께한 학습센터 : 4개소
꿈둥지지역아동센터, 비젼교실지역아동센터, 오예스청소년지역아동센터, 은광지역아동센터

3년 동안 함께한 학습센터 : 5개소
갈현지역아동센터,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달마지역아동센터, 멘토지역아동센터, 선한지역아동센터

2년 동안 함께한 학습센터 : 9개소
서울 가재울지역아동센터, 디모데지역아동센터, 씨앗지역아동센터, 옹달샘지역아동센터
대구 달서구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좋은친구지역아동센터, 드림지역아동센터, 청보리지역아동센터, 해피업지역아동센터

1년 동안 함께한 학습센터 : 14개소
서울 새날지역아동센터
대구 솔로몬지역아동센터, 경일중학교, 달성고등학교
부산 금사나너울 지역아동센터, 명정지역아동센터, 모여라지역아동센터, 문현지역아동센터, 반여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범일지역아동센터, 보금자리지역아동센터, 예선지역아동센터, 재반지역아동센터, 해운대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진로 멘토링

청소년과 함께한 사회인 소그룹 멘토링

11회 (서울 진행)

참여인원

70명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진로 멘토링

3회 (대구 2회 /부산1회)

참여인원

177명 (대구 108명 /부산 69명)

H-점프스쿨과 외부자원의 연계

H-점프스쿨은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습센터에 대학생 교육봉사자들을 파견하고 외부의 교육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관련 기관에서 H-점프스쿨의 취지와 비전에 공감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과 문화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외부자원의 연계를 통해 H-점프스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학습교재, 인터넷 동영상 강의의 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었으며 연극, 뮤지컬, 영어마을체험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자원을 연계하며 청소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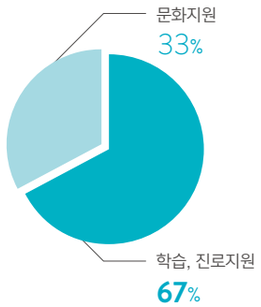
268,20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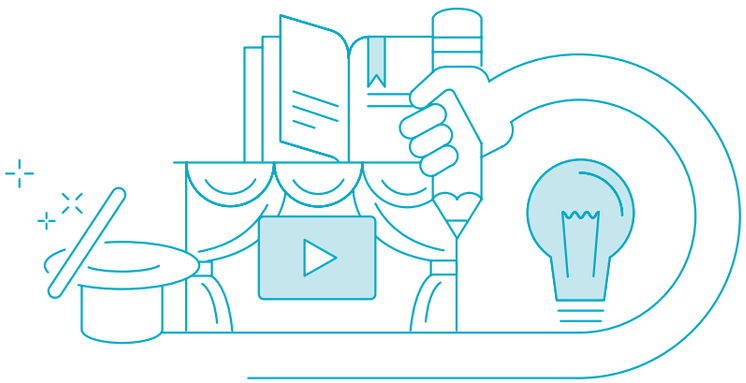
학습, 진로지원

180,526,000원

문화지원

87,680,000원





학습, 진로 지원

지원 금액

2기 5,750,000원

3기 5,063,000원

4기 5,2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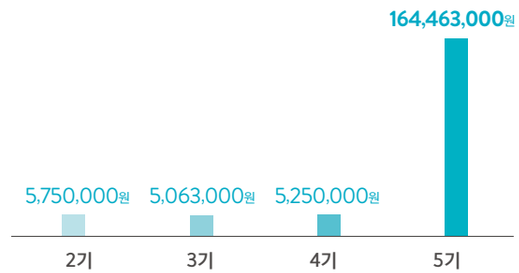
5기 164,463,000원

지원 내용

YBM에듀케이션/청소년 수유영어마을 체험 기회 제공

이투스 인터넷 동영상 강의 이용권, 교재

쌤앤파커스 진로서적



문화 지원

지원 금액

2기 9,450,000원

3기 9,000,000원

4기 12,180,000원

5기 57,0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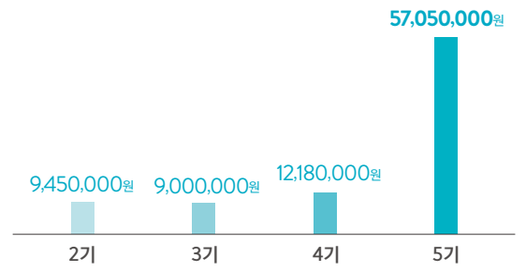
지원 내용

현대차그룹, 서울문화재단 지원 문화공연 관람

한글과 컴퓨터 코딩교실

K-water 강문화관 예술체험

소셜벤처 위민 역사체험



학습센터 담당자가 느끼는 H-점프스쿨 만족도

Q1

귀하께서는 H-점프스쿨 프로그램을 내 자녀 또는 친구의 자녀에게 얼마나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H-점프스쿨을 주위에 추천합니다!

99.9%

Q2

H-점프스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본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학부모님들이 좋아해요!

97.8%

Q3

타 대학생 교육봉사자 지원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H-점프스쿨의 대학생 교육봉사자 출석률은 어떻습니까?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장학샘들의 출석률이 높아요!

82.22%

Q4

H-점프스쿨 참여 후, 청소년의 평균 학습센터 이용 시간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H-점프스쿨 활동후 청소년 평균학습센터 평균 이용시간이 늘었어요

71.11%

Q5

타 대학생 교육봉사자 지원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H-점프스쿨의 대학생 교육봉사자 파견 기간(10개월)은 어떻습니까?

장학샘들의 활동기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83점

Q6

타 대학생 교육봉사자 지원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H-점프스쿨 프로그램의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가능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예시를 들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봉사활동

멘토지역아동센터

H-점프스쿨은 10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장학샘과 담당 청소년과의 지속적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습하는 청소년을 위해 팀을 이루어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학샘들이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며 함께 응원해주는 모습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장기 봉사활동을 하면 아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학습지도의 일관성이 생기기 때문에 학업능률이 높은 편입니다. 학습과정에서 지속적인 맞춤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청소년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그들의 변화와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검증된 장학샘 역량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장학샘들이 한 기관에 소속돼 활동한다는 점에서 응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샘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 사전교육을 통해 활동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관으로 파견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별 봉사자보다 책임감이 높습니다. 장학샘들은 활동에 질적인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담당자와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기관 담당자로서 장학샘들이 활동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 또한 큽니다.

재반지역아동센터

일반적인 봉사자들은 봉사 시간을 어기거나 자기 멋대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센터에 오신 유급 봉사자와 자원봉사자 모두 책임감 부분이나 성실성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장학샘의 경우는 면접을 보고 선발되었고, 장학샘 교육 등 관리가 잘 되어 책임감과 성실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약속이 잘 지켜지는 점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학습센터 선발과정 참여

가재울지역아동센터

선발과정에서부터 센터의 요구사항이 반영된다는 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H-점프스쿨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대상의 교육과 관리가 타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대학생들의 동기부여와 성실성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달서구 본동종합사회복지관

H-점프스쿨 장학샘은 면접을 통해 선발됩니다. 사전 모임과 교육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활동기관의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장학샘들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활동하며, 특히 청소년 대상 교육복지 사업에 꼭 필요한 인재상을 갖추었습니다. 자기관리에 소홀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부분에서 관찰되는 이타적인 사고방식은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됩니다.

사무국의 역할

디모데지역아동센터

H-점프스쿨 사무국은 장학샘 프로그램을 주관합니다. 장학샘들은 H-점프스쿨의 관리에 따라 청소년과 성인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학생들과 주기적으로 교감할 기회가 제공되므로 장학생(멘토)과 청소년(멘티) 간의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받은 만큼 나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대구 좋은친구지역아동센터 학부모

우수사례 학부모 (좌)노연희, (우)양희순

좋은친구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양희순 님(하람, 하은 어머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집에서 해줄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센터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들을 여기에 맡겨도 되겠다'라는 신뢰감이 들었어요! 제게 정보가 있었으면 딸들이 더 빨리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만큼 좋은친구지역아동센터 이용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로부터 H-점프스쿨과 대학생 선생님(이하 장학샘)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양희순 님 오빠랑 언니 같은 장학샘이 모르는 부분은 잘 가르쳐주니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나 학원 선생님은 엄하잖아요. 그런데 장학샘들은 편하고 재미있다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한 이후로 성격도 엄청 밝아졌어요.

노연희 님(대환 어머니) 대환이는 밑에 어린 동생이 있어서 항상 형으로서 동생을 챙기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저도 막내가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대환이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줬는데 장학샘을 만나고 나서는 대환이 성적이나 태도가 정말 좋아졌어요. 의지할 수 있는 형 같은 선생님이 생긴 덕분인 것 같아요. 학교 시험에서 만점을 맞을 때도 있고요. 박시현, 허승우 장학샘에게 참 감사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올곧게 크고 있는 대환이가 참 자랑스러워요.

주변에 보면 다른 청소년들은 학원에 많이 다니는데, 전문 강사가 아닌 장학샘과 공부하는 좋은친구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양희순 님 엄마한테는 말 못 할 이야기도 장학샘에게는 잘하는 것 같더라구요! 또 공부할 때는 친절한 선생님이 되어주시고요. 장학샘들의 공부 노하우도 알려주시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다 훨씬 쉽게 공부를 배웠다고 생각해요. 하람이는 "진작 학습센터를 알았다면 공부를 더욱 잘 했을 텐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노연희 님 대환이는 꿈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장학샘을 만난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장학샘을 보면서 학생들을 도와주고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도 이야기하고, 선생님과 좋아하는 야구 얘기를 나누면서 야구선수의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장학샘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롤모델의 역할을 해주면 좋을까요?

양희순 님 저희 집은 대학생이 사촌언니나 오빠 뿐이에요. 그런 사촌들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자주 만날 수가 없으니 롤모델이 되어줄 사람이 없었는데요. 학습센터의 장학샘들이 롤모델이 되어주어 참 좋았어요!

노연희 님 장학샘을 롤모델 삼아 대환이도 다른 사람을 돕고 베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분과 청소년들이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면 좋을까요?

양희순 님 지금 하람이나 하은이가 장학샘들에게 본의 아니게 많은 것들을 받았잖아요. 좋은 조건의 학습센터를 다니게 된 것과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까지도요. 자기 자신이 받은 만큼 남들에게도 베풀어야 해요.

우수사례 청소년 (좌)김하은, (우)노대환

인터뷰

장학샘에게서 성장의 롤모델을 찾다

서진습 센터장
대구 좋은친구지역아동센터

H-점프스쿨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자신도 성장하면서, 아이들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친구지역아동센터 소개를 해주세요.

좋은친구지역아동센터는 모든 아이들에게 배움을 포함해 삶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고요. 초반엔 힘들었지만 3년차부터는 여러 지원도 있었고, H-점프스쿨 덕분인지 아이들이 여기오는 걸 좋아해서 저희 센터가 굉장히 좋은 소문이 났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문의도 많이 오고, 정원을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 프로그램 봉사자들과 H-점프스쿨 장학샘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반 봉사자들이나 다른 재단에서 오는 학생들은 자기가 시간 되면 오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데도 자기 볼 일 때문에 못오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H-점프스쿨 장학샘 같은 경우는 센터 스케줄에 자기 스케줄을 맞춰서 활동하니까 센터 운영에 공백이 없어요. 저희에게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학습뿐만 아니라, 정말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대화가 안되잖아요. 그런데 H-점프스쿨 장학샘들은 언니, 누나, 형, 오빠가 되는 비슷한 세대여서 아이들이 H-점프스쿨 선생님에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인생 상담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봉사자 분들과 실제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요.

H-점프스쿨을 통해 장학샘들은 어떤 성장을 경험했을까요?

대학생들이 지역을 위해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봉사를 통해 많이 성장하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기부여해주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기 때문에 대학생인 장학샘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H-점프스쿨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자신도 성장하면서, 아이들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쌓이면 장학샘들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찾는 것 같아요.

H-점프스쿨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H-점프스쿨이 우리 센터가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저희는 큰 감사를 드려요. 우리 센터 앞만큼 아이들 소리가 많이 나는 곳은 없을 거예요. 저는 아이들 소리가 많이 난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학습적으로, 부모님들에게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역할들을 오랫동안 해주셨으면 하는 게 큰 바람입니다.

3. 교육의 혁신동력, H-점프스쿨이 만든다

성장의 선순환을 만드는 교육
글로벌 인재로의 도약

성장의 선순환을 만드는 교육

미래인재 양성

H-점프스쿨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꿈꿉니다.
H-점프스쿨이 청년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H-점프스쿨이 주목하는 '교육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 해소'는 결코 단시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긴 호흡으로 참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자라날 청년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H-점프스쿨의 비전에 공감하며, 사회문제에 계속 관심을 보이는 청년 대학생들과 함께라면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을 품는 여정이 더욱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둘째, H-점프스쿨은 교육 및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바라봅니다.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대를 가장 잘 형성할 이들은 청년층인 대학생입니다. 대학생들은 청소년기의 고민에 공감할 수 있는 또래의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고민에 대한 나름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어른의 면모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또래와 어른 사이인 '중간 어른'의 위치에서, 대학생들은 청소년들에게 친형제 자매처럼 이끌어주는 역할을 가장 잘하는 주체입니다.

위의 두 가지 이유로 H-점프스쿨은 대학생들과 함께합니다. 나아가 대학생들이 미래 창의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대학생 교육봉사자들이 청소년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듯, H-점프스쿨의 비전에 공감하는 사회인 멘토들은 대학생 교육봉사자들이 사회 통합적 인재가 되도록 돕습니다. 이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전문 멘토링을 통해 대학생 교육봉사자들이 미래의 창의인재로 거듭나게 합니다.
이밖에, H-점프스쿨은 대학생 교육봉사자들에게 교육봉사 활동 외의 H-점프스쿨 운영진(기장단/교육팀/홍보팀)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종합적 리더십과 멤버십을 함양토록 합니다.

멘토링

'교육 불평등 해소'와 '사회양극화 현상 해소'라는 사회문제 해결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한 개인이나 단체가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H-점프스쿨은 사회문제 해결의 씨앗이 많은 이에게 도달하도록 노력합니다. H-점프스쿨은 현 사회문제에 의식 있는 대학생 교육봉사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그리고 미래사회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대학생 교육봉사자들의 멘토링을 받아 청소년들이 더 바람직하게 성장하듯이, 대학생 교육봉사자들 역시 사회인 멘토의 멘토링을 통해 바람직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멘토링은 직업·직무 등의 취업 상담부터 이미 20대를 살아온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상담까지 폭넓은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런 멘토링을 통해 대학생 교육봉사자들은 진로문제처럼 인생에 필요한 부분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게 됩니다. 멘토링은 대학생 교육봉사자들의 수요에 맞추어 구성되며, 매칭 방식과 참여자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일대일 멘토링

멘토와 장학샘이 일대일로 매칭되어 교류합니다. 오프라인 만남과 SNS/유선/온라인 등의 소통창구를 활용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사회인 멘토가 장학샘의 개인적 목표와 고민을 함께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조언을 나눔으로써 장학샘의 성장을 힘껏 지지합니다.

소그룹 멘토링

소그룹 멘토링은 직무 및 직업과 관련된 주제로 멘토와 3~7명의 장학샘 그룹이 함께 진행하는 멘토링입니다. 멘토와 공통 관심사를 가진 장학샘들이 만나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멤버십을 형성할 수 있으며, 관심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이 이루어집니다.

단체 멘토링

'살롱 드 점프'는 H-점프스쿨의 단체 멘토링을 이르는 말로, 장학샘의 주요 관심사를 바탕으로 기획된 주제별 토크콘서트입니다. 직무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다양한 주제로 3~4명의 멘토가 나누는 대화를 곁에서 듣고 질문하며, 장학샘이 사회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취하고 발전적 고민을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멘토링 통계

H-점프스쿨 장학생들을 위한 멘토링은 직무 멘토링, 관심사 멘토링으로 나누어집니다. 활동 초반 장학생들에게 멘토링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후 장학생들의 소구에 맞추어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직무 관련 멘토링은 공기업 공공기관, 관심사 멘토링은 자아탐색에 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장학생들의 70% 이상이 멘토링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직무 멘토링 선호도 순위

1위 공기업 공공기관
2위 외국계 기업
3위 문화 예술
4위 IT 공학 보건의료
5위 경영 마케팅 컨설팅

실제 H-점프스쿨 멘토링 순위

1위 이공계 IT
2위 공기업 공공기관
3위 문화 예술
4위 IT 공학 보건의료
5위 경영 마케팅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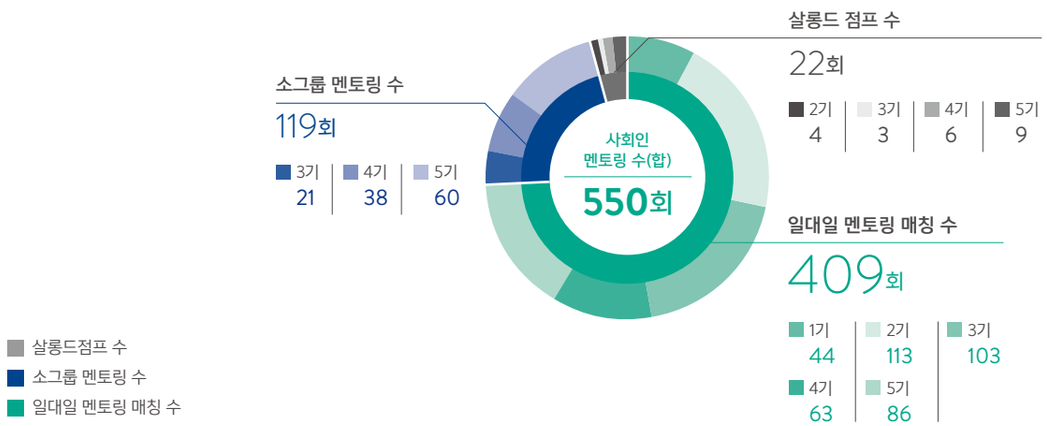
관심사 멘토링

1위 자아탐색
2위 해외경험
3위 소통 인간관계
4위 취미
5위 문화생활

관심사 멘토링

1위 자아탐색(진로, 취업, 고민)
2위 취미 관심사
3위 해외 경험
4위 취미
5위 문화생활

사회인 멘토링 수



멘토 소개

장학생들은 H-점프스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에게 깊이 있는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멘토단은 장학생들의 고민에 대한 실질적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주는 인생의 선배인 멘토단을 소개합니다. 멘토단은 크게 H-점프스쿨 임직원 멘토단, 동문 지역 멘토단, JUMP 사회인 멘토로 구성됩니다.

H-점프스쿨 임직원 멘토단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근무하는 직원 중 지원자로, 멘토링에 대한 의지가 강한 지원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연구, 개발, 설계, 해외·국내영업, 홍보, 인사·교육, 전략, 기획, 정책, 재무, 법무 등 주로 멘토의 직무와 연관된 분야에 관해 심도 있는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직무 외에도 직업과 전공의 상관관계, 연애, 여행, 취미, 재테크, 봉사, 대학생활처럼 멘토와 멘티의 흥미를 고려한 주제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동문 지역 멘토단

동문 지역 멘토단은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의 동문 멘토단과 대구, 부산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사회인 멘토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다양한 주제의 고민을 멘토 자신의 경험 및 가치관과 함께 자유롭게 나누어줍니다.

JUMP 사회인 멘토

학계, 공공영역, 이공계, 기업(외국계·대기업·중소기업), 경제·금융, 법조, 의료, 언론홍보, 교육, 문화예술, 시민사회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멘토링을 진행하며, 2018년 기준으로 322명의 사회인 멘토가 활발하게 활동중입니다. 진로에 대한 멘토링 뿐만 아니라, 유학, 삶, 진로 변경, 가치관, 꿈, 연애, 일상 고민 등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갑니다.

후기

멘토들의 긍정적 멘토링 경험

저도 장학생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또 같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저도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장학생과의 멘토링 이후, 명확하고 부지런하게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모습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김은미 현대차그룹 임직원 멘토

직업상 20대들과의 간격을 줄여야 하기도 해서, 요즘은 유튜브에서 뭐 찾아 보냐고 묻기도 해요. 이는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죠. 친구는 무슨 친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친구처럼 많은 이야기를 하고 듣기도 해요.

이지영 사회인 멘토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배움을 이어왔습니다. 그 배움이 좀 더 현실 사회에 관계를 맺고, 그곳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왔습니다. 그 방법이 H- 점프스쿨의 멘토링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류정민 사회인 멘토

소그룹 멘토링

멘토링 유형

소그룹 멘토링은 H-점프스쿨의 기본 멘토링 유형입니다. 모임 주최부터 실행까지 장학샘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기획력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연중 수시로 운영되므로 장학샘이 본인의 성격, 스케줄 등을 고려하여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장학샘들이 소그룹 형태로 모이기 때문에 서로 고민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유하거나 멘토들과의 심층적 토론이 가능합니다.

장학샘 기획

전체 장학샘들의 관심사 조사 / 소그룹 구성 / 사무국 내용 전달

멘토 섭외

사회인 멘토 신청서에 작성한 관심 멘토링 분야 및 직업, 직군 등 멘토 정보를 바탕으로 섭외

소그룹 멘토링 활동

장학샘과 사회인 멘토가 만나 직무관련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눔. 1~2시간 가량 멘토링 진행

많이 배웠어요!

평소에 큐레이터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단편적이더라고요. 이번 소그룹 멘토링을 통해 만난 멘토님이 예술계에서 실제로 경험한 일들을 구체적 정보와 함께 생생하게 말씀해주셔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멘토링을 통해 정보 및 조언을 얻으며 꿈을 키우고, 센터 청소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선순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채운 장학샘 (H-점프스쿨 3기)

많이 느꼈어요!

제 직업 관련 키워드(미술사학 전공 멘토님께 듣는 무한한 취업의 길)에 관심 있는 장학샘 6명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이 모여서 그런지 짧은 시간에 다양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어요.
함께 이야기했던 장학샘들의 순수함에, 지쳐 있던 회사 생활에 대한 동기부여도 됐습니다. 여러 명을 한 번에 만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도 많이 받았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내던 학생들을 잊을 수가 없네요.

문혜옥 멘토 (현대차그룹 임직원 멘토)

살롱드점프

17~18세기 프랑스에서 'SALON(살롱)'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열린 문화교류의 장을 의미했듯, '살롱드점프(Salon de JUMP)' 또한 멘토-장학샘 간의 일방적 지식전달이 아니라 열린 경험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토크콘서트 형식의 멘토링입니다. '살롱드점프'를 통해 전공지식 외에도 다양한 시각을 갖추며 더 넓은 세계를 탐구하고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심이슈 선정

장학샘들의 관심사 조사 / 대한민국 20대로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 선정

사무국 기획

선정된 이슈를 바탕으로 토크콘서트의 메인 테마, 행사 진행과정 설계 등 행사 전반을 기획

멘토 섭외

사회인 멘토 신청서에 작성한 관심 멘토링 분야 및 직업, 직군 등 멘토 정보를 바탕으로 섭외

살롱드점프

3~4명의 사회인 멘토가 연사로 초청돼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참가자와 소통하며 멘토링 진행

많이 배웠어요!

요즘 자신의 부족함에만 매달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탓했는데요. 멘토님을 보며 이런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아직 나의 길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말이죠. 이와 같이 취미부터 진로, 취업에 이어 인생에 이르기까지의 폭 넓고 진솔한 멘토링을 통해, 우리 장학샘들은 한층 더 성장하면서 삶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며, 그 길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강석희 장학샘 (H-점프스쿨 5기)

많이 느꼈어요!

'토크콘서트'라는 말이 부담스러워서 살롱드점프에 선뜻 가기가 어려웠어요. 막상 참여하고 보니 다른 멘토분들과 함께 장학샘들과 편하게 대화하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사회인 멘토로서 장학샘들에게 잘못 조언할까봐 고민했거든요. '멘토' 라는 말도 사실 어색했고요. 살롱드점프에서 다양한 관점을 지닌 멘토들과 이야기하다보니, 참석자 모두 서로에게 배우는 긍정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민선 사회인 멘토

일대일 멘토링

일대일 멘토링은 H-점프스쿨 대학생 교육봉사단의 개인적인 목표, 사회적인 목표를 비롯해 장학샘이 예비 사회인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함께 하며 장학샘이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멘토와 장학샘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유대감이 생깁니다. 이는 장학샘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여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 1~2회 사회인 멘토와 결연을 맺어 자율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만남, 이메일, 서신 등으로 교류합니다.

멘토단 / 장학샘그룹 구성

장학샘그룹 구성 및 사회인 멘토단 구성

일대일 결연

멘토의 키워드, 장학샘의 희망순위를 바탕으로 사무국에서 매칭 진행 후, 일대일 멘토링 가이드 안내

일대일 멘토링

장학샘 – 사회인 멘토가 일대일 매칭되어 직업 및 사회적 목표에 대한 멘토링을 심도 있게 진행

많이 배웠어요!

일대일 멘토링으로 만난 멘토님은 저의 고민거리에 대해 솔직한 답변과 함께 조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멘토님의 경험담과 연관시켜 저의 고민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도와주셨어요.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애정을 가득 담아 이야기해주셨기에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학교생활은 물론 장학샘 활동을 통한 교육봉사까지 하느라 체력적으로 무척 힘들었어요. 하지만 멘토님께서 많이 지지해주셔서 다행히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이 끝난 후에도 종종 멘토님과 문자/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지냅니다. 고민이 생겼을 때 의논할 수 있는 든든한 응원군을 얻은 느낌이에요.

장민수 장학샘 (H-점프스쿨 2기)

많이 느꼈어요!

저와 매칭된 장학샘과 정기적으로 약속을 정하고 만나다 보니 그 친구와 한 학기 활동을 같이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장학샘은 저에게는 멘티지만 H-점프스쿨에서는 또다른 누군가의 멘토이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웠죠. 장학샘이 교육 봉사활동을 하며 마음을 열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열정적으로 다가가더군요. 그 모습에 저 또한 자극을 받고 제가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멘토링 활동은 각박한 사회생활에 지쳐 있던 저 자신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현영 멘토 (현대차그룹 임직원 멘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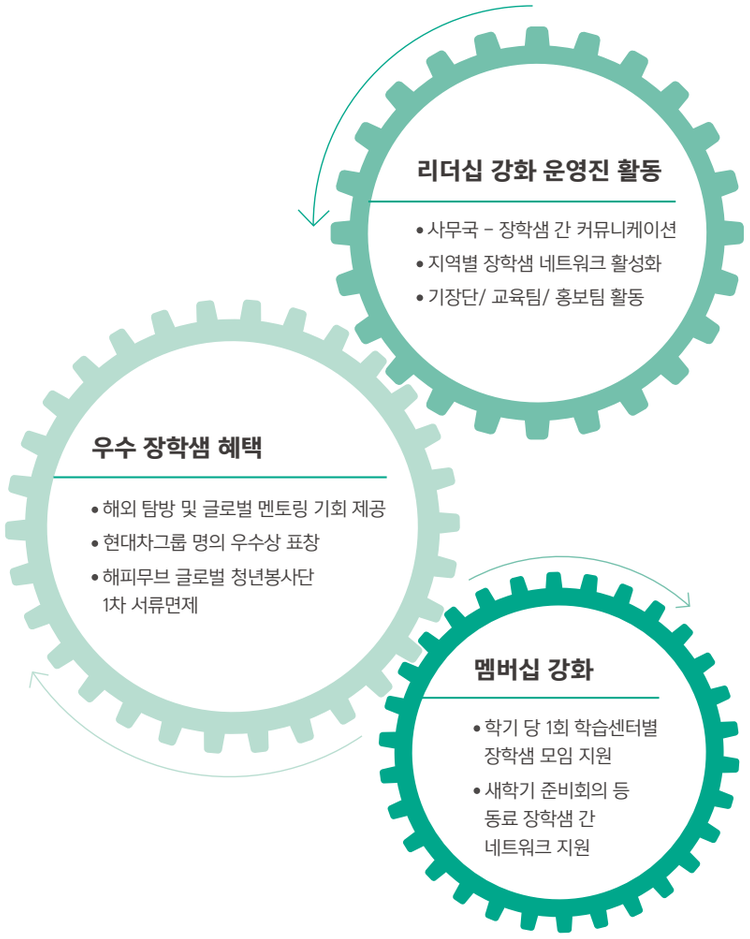
현대차그룹 대학생교육봉사단 H-점프스쿨 5기 장학샘 수료식

글로벌 인재로의 도약

리더십 강화

H-점프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학샘은 1년간 활동하며 교육훈련 / 멘토링 / 교육봉사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미래인재로 성장합니다. 또한, 리더십 / 멤버십 함양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갖춘 통섭형 인재로 자랍니다.

인재양성: 역량강화



운영진 활동

장학샘들은 장학금과 멘토링 뿐만 아니라, H-점프스쿨의 일부분을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운영진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합니다. 활동 내용은 다양합니다. 교육봉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경험 공유의 장을 마련하거나, 장학샘들 간의 돈독한 네트워킹을 위한 레크레이션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장학샘들은 교육봉사, 멘토링, 운영진 활동을 통해 다방면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의 리더십 함양에 대한 사회 전 영역의 요구에 부응하게 됩니다.

장학샘 최종선발이 완료된 후에는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거쳐, 장학샘 그룹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진이 꾸려집니다. 세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단은 기장 1명과 남자 부기장, 여자 부기장 각 1명씩으로 구성됩니다. H-점프스쿨의 해당 기수를 대표하는 기장단은 공지사항 전달, 건의사항 수렴 및 제안과 같은 주체적인 활동으로 사무국과 장학샘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학샘 사이의 유대감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활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육팀은 H-점프스쿨의 특색인 멘토링을 기획·운영합니다. 해당 기수의 장학샘들이 원하는 수요에 맞추어 각 멘토링을 기획하여 제안하고, 사무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각 멘토링을 운영합니다. 이 외에도 장학샘들의 활동을 점검하는 워크숍이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멤버십 트레이닝을 기획해 추진하기도 합니다.

홍보팀은 H-점프스쿨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멘토링, 워크숍, MT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활동 기간 중 장학샘의 본분을 다하는 '이달의 장학샘'을 선발해 취재하는 일을 합니다. 틀에 박힌 인터뷰를 진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봉사를 진행하며 느낄 수 있는 고민과,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알리는 창구 기능을 수행합니다.

키워드로 보는 운영진 활동

****이달의 장학샘은?**

H-점프스쿨 활동에서 깨달은 교육봉사 노하우, 멘토링 경험담, 성장 스토리 등 동료 장학샘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진 장학샘으로서, 홍보팀이 선정한 이달의 Keyword의 주인공입니다.

기장단

#기획부터_진행까지 #디테일 #좋은_사람들

우리 손으로 만드는 프로그램

H-점프스쿨의 가장 큰 특징은 장학샘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료 장학샘, 사무국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멘토링을 기획해 볼 수 있었습니다. 메뉴, 장소선정부터 프로그램 진행까지 하나하나 품이 들지 않는 것이 없고 신경쓸 곳이 많았습니다. 크게 기획을 하고 작은 디테일까지 챙기면서 동료장학샘들과 협업하는 과정속에서 제가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H-점프스쿨의 프로그램은 정말 촘촘하고 힘들기로 유명하지만 좋은 인연들과 함께여서 10개월의 긴 활동속에서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강병민 장학샘

교육팀

#인문학특강 #다양한_관점 #너와_나의_의견_다_옳아

동료 장학샘 네트워킹

공대에 다니고 있어 같은 단과대학, 같은 학과의 사람들과는 의견·관점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시야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원했습니다. 교육팀 활동을 하며 다양한 시야를 가진 사람과 교류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다른 관점을 지닌 사람들과, 제가 겪어보지 못한 진행방식으로 토론·토의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지 못한 문제 해결 방식이 도출되는 것에 감탄하기도 했고, 교육팀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했던 '인문학특강'의 경우, 첫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매우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분명 고된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법, 저와 다른 관점을 수용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의견을 나눈 만큼 성장했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송현준 장학샘

홍보팀

#주체적 #관계형성 #소소하지만_확실한_꿀팁

홍보팀 취재활동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운영진의 특성상 장학샘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따라 각자 얻어가는 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홍보팀 취재활동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동료 장학샘들과의, 그리고 같은 홍보팀원들과의 관계 형성에서 오는 도움이 있었습니다. 진로나 학교생활에 관련된 대외활동이나 장학금 관련 정보부터, 요즘 즐겨 보는 영화, 드라마, 책 등의 문화생활까지, 같은 대학생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저 역시 동료 장학샘들에게 도움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문현비 장학샘

홍보팀

#신선한_자극 #영감 #바르게_가고_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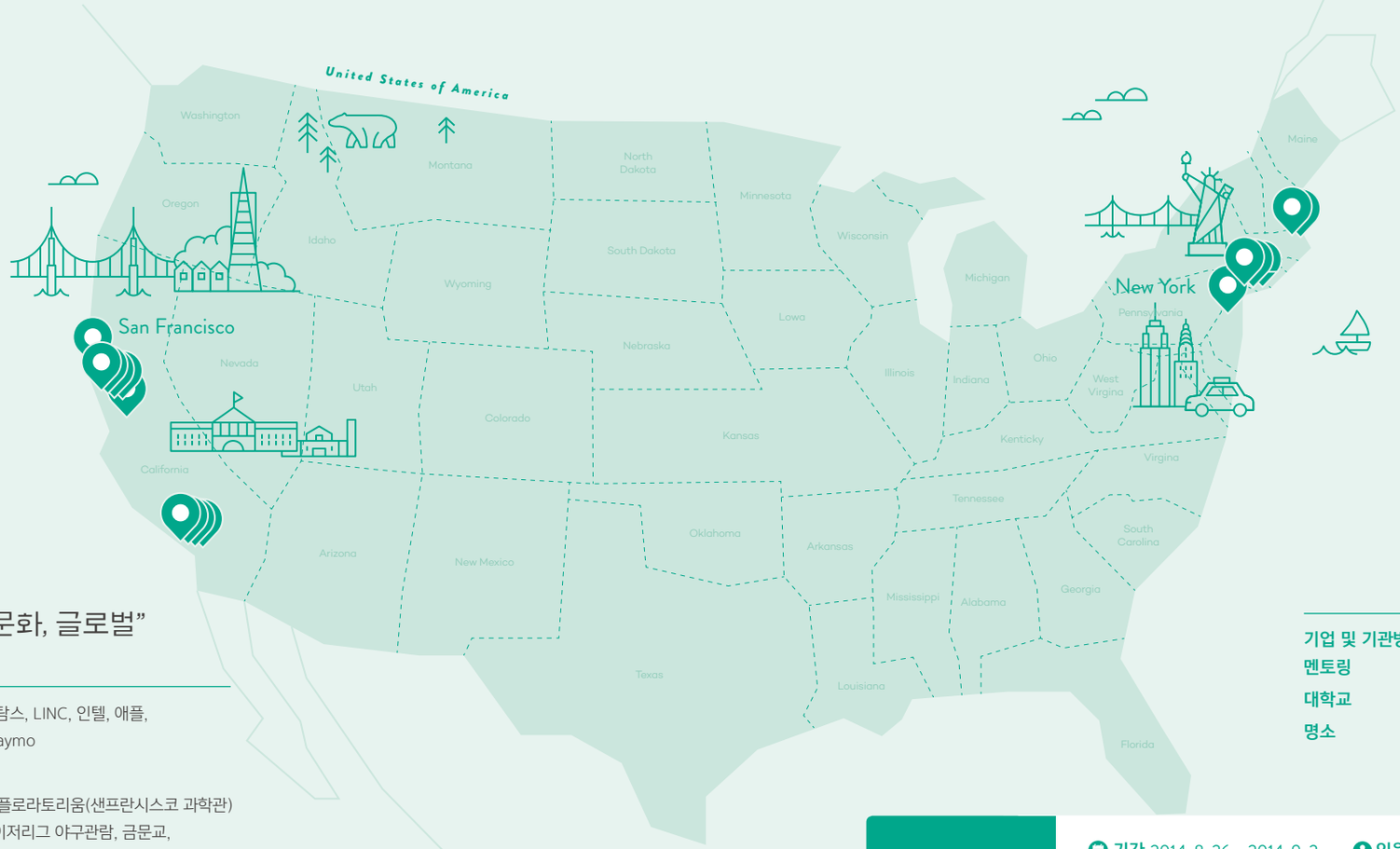
이달의 장학샘 취재활동

무엇보다 홍보팀 활동에 있어 '이달의 장학샘'을 취재한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H-점프스쿨이 1년간의 장기활동이다 보니 새로운 자극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달의 장학샘' 취재는 제게 신선한 자극이었습니다. 다양한 행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장학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잠시 풀어졌던 저를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아이들을 대하며 고민하던 부분에 대한 해답을 들을 수 있었고, 학습지도 방식에 대한 영감도 얻었습니다. 취재와 편집 모두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홍보팀 활동이 제 H-점프스쿨 활동을 바르게 이끌어준 이정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황혜진 장학샘

글로벌 경험

H-점프스쿨은 1년 간의 활동을 무사히 수료하는 과정에서 교육나눔 활동, 역량강화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한 장학생들에게 해외탐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국 LA 및 샌프란시스코 서부 탐방

"혁신의 시작, 실리콘밸리의 기업문화, 글로벌"

기업 및 기관방문 멘토링	건축회사 갠슬러, 구글, 픽사, 페이스북, 탐스, LINC, 인텔, 애플, Talking Points, Send Bird, Niantic, Waymo
대학교	스탠포드 대학교
명소	그리피스 천문대, 더브로드 뮤지엄, 익스플로라토리움(샌프란시스코 과학관) 도산 안창호 생가, 드영 박물관,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관람, 금문교, Muir woods national monument, Veggielution 커뮤니티 농장

4기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혁신

기간 2017. 6. 26 ~ 2017. 7. 1 **인원** 우수활동자 13명 참여

6박 7일간 진행된 해외탐방은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에서의 멘토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건축기업 갠슬러,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숙한 기업들인 구글과, 픽사, 페이스북, 탐스, 링크, 인텔과 같은 유수의 기업에서 재직 중인 멘토들에게서 멘토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멘토마다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다양했습니다. 덕분에 해외탐방단은 다양한 내용의 멘토링과 함께 폭넓게 시야를 넓힐 계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해외탐방단은 스탠퍼드 대학을 방문해 캠퍼스의 정취를 만끽했고, 영화 <라라랜드>로 유명해진 그리피스 천문대,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인 익스플로라토리움을 견학했습니다.

5기 세계로 확장되는 시야

기간 2018. 6. 25 ~ 2018. 7. 1 **인원** 우수활동자 20명 참여

미국 서부로 날아가 페이스북, 구글, 애플, WAYMO와 같은 기업에 있는 멘토에게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국외에도 선택지는 많다는 것을 알려준 멘토들 덕분에 20명의 장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시야가 한결 넓어졌습니다. 또한 비영리 스타트업인 토킹포인츠를 포함해, 다른 스타트업에 재직 중인 멘토들이 역설하는 사회적 가치들은 해외탐방단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들은 멘토링 이후 금문교와 뮤어 우즈 같은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했으며, 드 영 박물관에서 잠시 마음을 충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욕 및 동부 탐방

"학문과 자유의 도시 멘토링"

기업 및 기관방문 멘토링	퀸즈 뉴욕가정상담소 , 이노비(ENOB), UN 글로벌 컴팩트, 건축회사 PERKINS EASTMAN
대학교	콜롬비아대학교, MIT,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교
명소	록펠러 타워, 브루클린 다리, 엠파이어 빌딩 전망대, 자유의 여신상

1기 청소년과 함께하는 미국 탐방

기간 2014. 8. 26 ~ 2014. 9. 2 **인원** 우수활동자 5명, 청소년 5명 참여

H-점프스쿨의 첫 번째 해외탐방은 청소년과 함께 했습니다. MIT, 하버드, 프린스턴, 콜롬비아와 같은 유수의 대학을 탐방했고, UN본부, 센트럴파크, 월가, 하버드 센터와 같은 명소를 살펴보며 견문을 넓혔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다양한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2기 함께 해결하는 사회문제

기간 2015. 6. 25 ~ 2015. 7. 3 **인원** 우수활동자 8명 참여

H-점프스쿨이 사회문제 해결에 힘쓰듯, 미국에도 사회문제 해결에 주목하는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해외탐방은 이러한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주요 일정이었답니다. 퀸즈의 뉴욕가정상담소, 이노비(EnoB), UN 글로벌 컴팩트와 같은 기관을 방문하여 각 기관이 주목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듣고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콜롬비아, MIT, 하버드 대학 등을 탐방했으며, 멘토가 재직 중인 회사나 단체를 방문하여 멘토링을 들었습니다.

3기 학문과 자유의 도시 탐방

기간 2016. 6. 25 ~ 2016. 7. 9 **인원** 우수활동자 10명 참여

해외탐방단은 미국 동부의 UN본부와 뉴욕가정상담소를 견학했으며, 콜롬비아와 프린스턴, 하버드, MIT에 있는 멘토들의 안내로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해외탐방단은 투어 후 운치 있는 캠퍼스를 배경으로 멘토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엠파이어 빌딩의 전망대에서 뉴욕 시내를 내려다보며 멘토링의 의미를 되새겼고, 자유의 여신상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4. 함께 하는 교육, H-점프스쿨이 짓다

함께 만드는 교육의 미래

H-점프스쿨에게 한 마디

H-점프스쿨이 만들어갈 길

함께 만드는 교육의 미래

다자 간 민관협력

정부, 기업, 비영리단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식의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3자 간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이라고 부릅니다. PPP의 특징은 정부, 기업, 그리고 비영리단체가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서로의 비교우위에 집중하고 민간기업이 사업 예산의 큰 부분을 부담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세계적 기업인 현대차그룹은 재정적 측면과 높은 브랜딩 파워에서 뚜렷한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JUMP는 H-점프스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전문적 운영 노하우를 보유했습니다. 서울장학재단,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대구 서구청의 참여는 대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기관들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많은 주체가 교육 불평등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가 많은 복잡한 문제이기에 눈에 띄는 성과는 별로 없지만, 이런 노력은 수많은 격려 속에 계속돼야 합니다. H-점프스쿨은 민관의 다자 간 협력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더 근본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H-점프스쿨의 PPP 모델은 다양한 학술적 연구와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평가로, 기존 접근법 대비 여러 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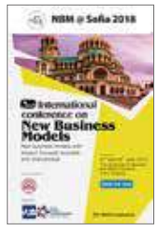
협력의 롤모델

유럽의 국제 컨퍼런스에서 현대차그룹-서울장학재단-점프가 5년간 함께 한 H-점프스쿨이 다자간 협력모델의 성공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H-점프스쿨의 사례가 소개된 곳 중 하나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NBM(New Business Model) 컨퍼런스 현장입니다. 이 컨퍼런스는 유럽의 지속가능발전 및 CSR, 섹터 간 협력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의 시도가 세계의 사회경제적 추세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연구합니다. 특히 UN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발표한 이후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미래 사회를 만들고자 여러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불평등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를 다자 간 협력의 방법으로 해결해나가고 있는 사례는 사회적경제가 시작된 유럽에서도 아직 초기 연구단계입니다. 이런 점에서, NBM H-점프스쿨의 사례는 매우 흥미로운 방식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H-점프스쿨 프로그램이 청소년과 대학생, 파트너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것을 평가하는 방법 또한 놀랍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은 규모의 비영리단체(소셜벤처)와 5년간 파트너십을 맺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현대차그룹의 도전과 노력은 대단하다고 전했습니다. NBM 컨퍼런스에서의 좋은 반응에 힘입어 EU 집행위원회 컨퍼런스에도 추가적으로 H-점프스쿨의 사례를 요청받았습니다. 유럽에서도 H-점프스쿨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UN 제 70차 총회에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목표로 발표하였으며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 와 지구 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다.



NBM 컨퍼런스 2018

NBM 컨퍼런스 2018

일시 · 장소 2018.6.26 ~ 6.28 | 불가리아 소피아
목적 유럽 지속가능 / CSR / 사회적경제 연구, 섹터 간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연구 및 네트워킹
발표 내용 현대차그룹 CSR 성공사례 발표 (H-점프스쿨)
발표자 현대차그룹 사회문화팀 최재호 부장

EU 집행위원회 컨퍼런스

EU집행위원회 컨퍼런스

일시 · 장소 2018.7.3 ~ 7.4 | 브뤼셀 Thon호텔
참석자 EU집행위원회 사회적경제 위원장 (Ulla Engelmann), 벨기에 브뤼셀 고용장관 등 200여명
주제 영리기업과 사회적기업간의 파트너십 구축, 유럽의 사회적경제, 공유가치 창출, 임팩트투자 등
발표자 현대차그룹 브뤼셀 사무소 얀 부르딘스키 이사

H-점프스쿨에 한마디

5년 후가 기대되는 H-점프스쿨

홍순만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특훈교수

다자간 민관 협력을 통한 새로운 기업사회공헌 모델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홍순만 교수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국제학술지 Public Money & Management Volume 38, 2018 - Issue 4 게재

사회과학에서 정책효과를 논의할 때 자주 인용되는 개념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충관계(equity-efficiency tradeoff)'를 꼽을 수 있다. 이 개념은 정부가 경제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할 때, 비록 효율성은 개선되지만 많은 경우 사회적 및 경제적 형평은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때, 많은 경우 경제적 효율성은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정부 입장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개선하는 정책을 찾기가 쉽지 않고, 동일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선호도 가치관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는 이유다.

모든 정책이 이러한 상충관계의 틀 안에 갇혀있는 것은 아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예로 자주 언급되는 정책들이 몇 가지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정책이다. 교육정책 관점에서 효율적인 정책이란 사회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재가 교육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것이고, 형평은 모든 인재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육격차 해소야 말로 우리 사회의 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과 관계없이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할 우리 시대의 사명이 아닌가 한다.

사단법인 점프는 '교육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요구에 기여하고자 2011년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점프의 본격적인 활동은 2013년 현대차그룹, 서울장학재단과 함께 H-점프스쿨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크게 확대 및 발전해 왔다. 특히 H-점프스쿨은 비영리단체(점프), 대기업(현대차그룹), 공공기관(서울장학재단)의 3자 간 민관협력 모델로 세계 학계의 관심을 받으며 SSCI급 국제저명 학술지인 Public Money & Management지 2018년 6월호에 소개된 바 있다. 각각 다른 비교우위를 가진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교육격차 해소라는 공동의 목표와 신뢰에 기반한 협력모델을 구축했을 때 그 시너지는 참으로 대단할 수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시작한 H-점프스쿨 사업은 2016년 대구, 2017년에는 부산으로 확장하며 전국적인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고 있다. 수혜학생도 2013년 254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2,225명으로 약 10배 넘게 확대되었다. H-점프스쿨은 지난 5년간 청소년 사교육비 및 청년 취업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 약 148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H-점프스쿨 사업이 이룬 성과를 이러한 계량화된 숫자에 모두 담을 수 없을 것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H-점프스쿨의 가장 큰 성과는 사회적 가치의 선순환에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즉 H-점프스쿨로부터 교육수혜를 받았던 학생들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후배들에게 학습지도를 해주고자 대학생 교사로 돌아오고 있다. 나눔의 혜택을 받은 이들이 다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이다. 교육격차 해소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나눔의 정신을 전파하는 행위가 아닐까? H-점프스쿨의 지난 과거 5년간의 성과보다 앞으로의 5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인터뷰

살롱드점프가 말하다: 교육 선순환의 원동력

현대차그룹
서울장학재단
경북대학교
사단법인 점프

****살롱 드 점프**

H-점프스쿨의 단체 멘토링을 이르는 말로, 장학샘의 주요 관심사를 바탕으로 기획된 주제별 토크콘서트입니다.
토크콘서트 현장에서는 3-4명의 멘토가 직무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다양한 주제에 관해 대화를 나눕니다. 콘서트에 참가한 장학샘들은 이 대화를 곁에서 듣고 질문하며, 사회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취하고 발전적 고민을 할 기회를 얻습니다.

※ 본 원고는 각 기관의 인터뷰 내용을 살롱드점프 형식으로 재가공하였음을 알립니다.

장학샘: 가난하지만 총명한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전설' 취급을 받는다지요? 그렇기에 오늘날의 미래세대에게는 더욱 공정한 교육기회가 필요합니다. H-점프스쿨은 우리 주변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필요를 발견하여 시작된 사업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었음에도 이 사업이 5년 동안 쭉 이어져 왔던 것은 함께 하는 파트너, 사회인 멘토, 학습센터가 있어서이지 않을까요? H-점프스쿨 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살롱드점프:협력의 비결>에서는, 현대차그룹 사회문화팀 최재호 부장님과 서울장학재단 최준근 부장님, 정대근 선생님, 사단법인 점프 이의헌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Q. H-점프스쿨은 '교육불평등 해소'라는 미션을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인데요. 원래 가장 큰 결심이 필요한 순간은 어떤 일을 처음 할 때잖아요! 어떤 점에 공감해서 H-점프스쿨을 시작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A. 현대차그룹

안녕하세요. 현대차그룹 사회문화팀 최재호입니다. 5년 전 H-점프스쿨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습니다. 점프를 처음 만났을 때 점프의 철학과 미션에 공감했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데 고개를 끄덕였죠. 보통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이런 식의 공감만으로는 시작할 수 없는 일인데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 현대차그룹이 앞장서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이 사업을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A. 서울장학재단

저는 서울장학재단 최준근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전 모임같은 단체였던 점프와 현대차그룹이 우리 재단을 방문했어요. 흔치 않은 상황이었기에 상대의 말을 더 유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점프가 주목했던 교육격차 문제는 장학재단의 큰 임무였기에 관심이 갔죠. 좋은 일이자 해야 하는 일이기에 장학재단에서도 노력 중인 부분이거든요. 저희 재단과 같은 뜻을 지닌 단체들과 협업한다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 거로 생각했어요.

A. 현대차그룹

물론 H-점프스쿨을 통해 점프의 미션을 실행하는 과정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는 과정이 수반되었죠. 장학금을 전달하거나 기부하는 식의 일방향적 사회공헌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물질적 비용 외의 인적 재원이 필요했습니다. 점프를 비롯한 저희 임직원 멘토들이 진심으로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H-점프스쿨이 제안한 모델은 단순하게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정서적 보살핌을 받고 성장하는 것이었죠. 그 청소년들이 대학생 교사로, 나아가 사회인 멘토로 성장하며 함께 한다는 모델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없는 모델이었기에, H-점프스쿨에 현대차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함께 하기에 좋은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교육사업처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발판을 함께 만들고 나눌 줄 아는 마음마저 전달한다는 점에서 보람 있는 사업이라고 봤어요.

5기 살롱드점프

A. 서울장학재단

그렇죠. 저희 재단에서도 장학금을 전달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에 주목했어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이유는 무언가에 우수하기 때문인데, 이런 점 때문에 승자가 독식하는 경향이 있죠. 나만 잘살면 된다는 분위기도 있고요. 그런데 H-점프스쿨이란 사업 자체는 바로 옆의 이웃들에게 자신의 가치와 능력처럼 나눌 수 있는 뭔가를 전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선순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는 우리 재단이 이 사업을 함께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Q. 말씀을 종합하면,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배움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점이 H-점프스쿨의 특별함이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이 복잡할 것 같아요. 혹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A. 사단법인 점프

'교육불평등 해소'는 이미 많은 분이 노력해오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복잡한 문제라 진전이 더뎠어요. 저희는 기존에 협력하던 분들이 힘을 합치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양한 종류의 힘과 에너지가 하나로 모이면 좋을 것 같았죠. 그래서 민관협력을 생각했고요. 민관협력 PPP의 특징은 정부, 기업, 그리고 비영리단체가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의 비교우위에 집중하죠. 민간기업이 사업 예산의 큰 부분을 부담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여준다는 특징이 있어요. 2010년 사업 시작 당시, 작은 단체였던 저

희의 손을 잡아준 현대차그룹과 서울장학재단 덕분에 5년 동안 즐겁고 의미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죠.

Q.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PPP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흔하지 않은 구조다 보니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경험과 극복 방법을 공유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서울장학재단

처음 1~2년은 힘들었어요. 많이! (웃음) 그 시기에 현대차그룹이나 서울장학재단의 업무 프로세스를 충분히 나누지 못했다면 지금처럼 단단하게 자리잡지 못했을 거예요. 파트너십에 투자하는 이유는 '가치' 때문이지, 재단이나 혹은 기관을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일을 함께하자는 거니까, 내 욕심을 100% 유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파트너십을 망치는 지름길이고요. 욕심을 버리고 함께 가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H-점프스쿨의 로드맵을 짜면서, 장학샘 선발 및 교육 프로그램에 배치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 중 어느 것 하나 세 기관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하나 모두 세 기관의 노하우가 들어갔죠. 장학재단의 노하우가 녹아든 부분도 있고, 그 노하우가 파트너들과 H-점프스쿨의 결에 맞게 잘 정리되기도 했죠. 운영기관인 점프가 각 기관의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지금의 사업운영 모델을 안정적으로 꽃 피워낸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A. 현대차그룹

최준근 부장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사회문제들을 기업이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 집단 혹은 사회적 기업, 시민 단체와 같이 사회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솔루션을 가진 분들과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룹이 직접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효율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 단체 및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큰 성과를 함께 만들어내는 일에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사회공헌 전략이기도 하고요. 역량 있는 비영리단체와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Q. 대학에서 개개인이 머리를 맞대는 팀 프로젝트도 힘겨운데, 기관들이 손을 잡았음에도 군더더기 없는 운영이 가능했던 것은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했기 때문이네요! 방금 답변들의 증거로, 실제로 H-점프스쿨은 5년 동안 많은 성과를 냈다고 알고 있어요. 운영 지역도 4년차에는 대구로, 5년차에는 부산으로까지 확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새로운 파트너, 경북대학교 정대근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A. 경북대학교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정대근입니다. H-점프스쿨이 기존 수도권에서만 진행되던 사업이었는데, 2016년에 저희가 지역 최초로 귀중한 기회를 얻게 돼서 무척 좋습니다. 사실 지역에서는 교육 수준 향상이나, 창의인재 양성 같은 기치가 매우 필요합니다. 경북대학교가 H-점프스쿨의 사업에 함께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부재에 필요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4기부터 참여하며 현재까지 55명의 장학샘이 6곳의 학습센터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장학재단 최준근 부장

A. 사단법인 점프

대구를 비롯해 부산에서 장학샘들이 열심히 활동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구에서 지역 확장의 물꼬를 터주신 데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은 활동범위를 넓히려 합니다. 도시는 물론 읍, 면 단위까지 H-점프스쿨을 확대해 교육의 기회를 확장할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H-점프스쿨과 같은 민관 협력 모델이 해외에서도 실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차그룹 최재호 부장

A. 서울장학재단

H-점프스쿨의 모델이 광주, 충청 지역으로 확장돼서 사회운동화되는 기반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H-점프스쿨의 꿈을 펼쳐갈 지역 단체들을 만나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운동화에 필요한 역할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Q. H-점프스쿨을 5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데는 나눔의 선순환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멘토링 관계가 지닌 힘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A. 서울장학재단

멘토는 책임감이 있는 단어입니다. 누군가에게 자기 삶의 모습과 추구하는 가치, 혹은 재능을 전달하면서 역할 모델이 되는 것이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소외된 친구들에게는 역할모델을 보며 성장하는 경험이 부족하죠. 그동안의 공익사업을 하면서, 멘토와 같은 인적 자원들이 부족한 상태로 학교생활을 할 때 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어요. 학생들이 공부 방법이라던가 누구를 롤모델 삼아 인생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겪는 부분에서 멘토의 중요성을 느꼈죠. 이 때문에 H-점프스쿨이 학생들에게 주는 가치 중 '멘토들의 선순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A. 현대차그룹

H-점프스쿨의 성과에 대해 청소년들의 교육 시간이나 1년 동안의 프로그램 참여 횟수를 수치화해서 보고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좀 더 따뜻한 미래인재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정량적으로 수치화는 안 되지만, 나중에 그 대학생들이 사회인이 됐을 때 우리 사회에 사회문제를 좌시하지 않는 미래 인재로 거듭난다고 보고요. 그런 대학생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청소년들 또한 훌륭한 인재로 커나갈 수 있어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처지가 다른 친구들과 조금 다르다는 점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았을 수 있겠죠. 그 마음을 열어주는 장학샘들이 있어 우리 청소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커나간다고 봅니다. 그 숫자가 100명이건 1,000명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단지 10명이라도 감동을 느끼고 변화가 만들어졌다면 저희는 이 사업이 성공적이라 생각합니다.

A. 사단법인 점프

저희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선배들, 더 어릴 때 보면은 형, 언니, 오빠, 누나들이 부모님이나 사회 어른들이 해주기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채워줬죠. 요즘 대학생들은 그런 존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점프가 생각하는 사회인 멘토는

사단법인 점프 이의헌 이사장

내가 하는 고민을 몇 년 앞서 해온 사람이자, 내 고민을 들어주고 그것을 공감해주는 형, 누나, 언니, 오빠와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A. 경북대학교

멘티의 입장에서는 멘토의 모습이 구체적인 삶의 목표로 다가올 수 있고, 멘토 또한 멘티와 함께하면서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한 번 더 제고하는 계기가 됩니다. 멘토와 멘티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요. 서로의 꿈이 시너지를 일으켰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멘토들이 보여주는 삶의 목표와 기준이 그들의 성장동력일 테고요. 멘토도 학생들에게 배움을 주는 과정에서 자기 삶의 구체적 부분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겠지요.

Q. 각 이해 관계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H-점프스쿨이 사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A. 현대차그룹

저는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교육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조금만 보살핌을 받으면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부모님이 바쁘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 사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스스로 자랑스럽습니다. H-점프스쿨에 대한 애착이 매우 큽니다.

A. 서울장학재단

H-점프스쿨의 순환 모델에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겐 교육의 격차를, 대학생들에게 경험의 격차를 해소하니까요. H-점프스쿨에 참여한 이들이 성장해 대학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했을 때, 본인의 경험 격차를 대물림하지 않도록 기여하겠다고 마음먹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A. 사단법인 점프

H-점프스쿨의 키워드로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하나는 '협력', 다른 하나는 '배려'입니다. 협력은 현대차그룹과 서울장학재단은 물론 지역아동센터와 중간지원조직까지 각 조직의 자원을 합쳐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대차그룹과 서울장학재단, 그리고 경북대와 부산대, 대학생들이 활동하는 학습센터까지 여러 기관의 자원을 함께 모아 이 사업을 진행하죠.

'배려'와 관련해서는, H-점프스쿨의 과정에서 조직끼리 상대방을 많이 배려해준다는 점을 꼽겠습니다. 이 협력을 5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각 조직의 이익보다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을 좋은 인재로 키워내자는 공동의 미션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참여자들이 서로를 배려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A. 서울장학재단

5년 동안 세 개의 기관이 함께 H-점프스쿨을 진행하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파트너쉽의 주체인 실무자 세 명이 5년 동안 사업의 지향점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함께하는 과정에서 매우 친해졌어요. 함께하는 시간 동안 H-점프스쿨이 추구하는 가치를 현장에서 함께 경험하고, 같은 지향점을 바라보자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순탄하게 일을 지속해왔던 것 같고요. 우리 세 개 단체가 H-점프스쿨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일을 기획해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의 경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파생될 수 있기에, 한 번 더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죠?

Q.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과 장학샘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A. 사단법인 점프

처음에는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과 장학샘이 만나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변화와 성장에 많이 주목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하면 할수록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학생 또한 성장하는 것을 봤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선순환의 고리에서 가장 끝에 있는 사회인 멘토들도 이 활동을 통해 매우 큰 만족감을 느끼고 본인도 성장한다고 얘기하죠. 때문에 H-점프스쿨은 '모두가 성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청소년들은 여러분과 함께 해준 대학생 언니, 오빠들처럼 대학에 가서 장학샘을 하면 좋겠고요. 장학샘 여러분들은 졸업하면 후원자나 사회인 멘토가 되어 다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갔으면 해요.

A. 서울장학재단

우리 장학샘들은 지금 이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기부한다는 것 자체로 매우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이죠. 작은 아이들과 약속 하나라도 상당히 책임감을 갖고 자기의 마음을 나눠 활동해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본인들에게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경험인 멘토로써의 활동도 더욱더 열심히 하고요. 우리 청소년, 장학샘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A. 경북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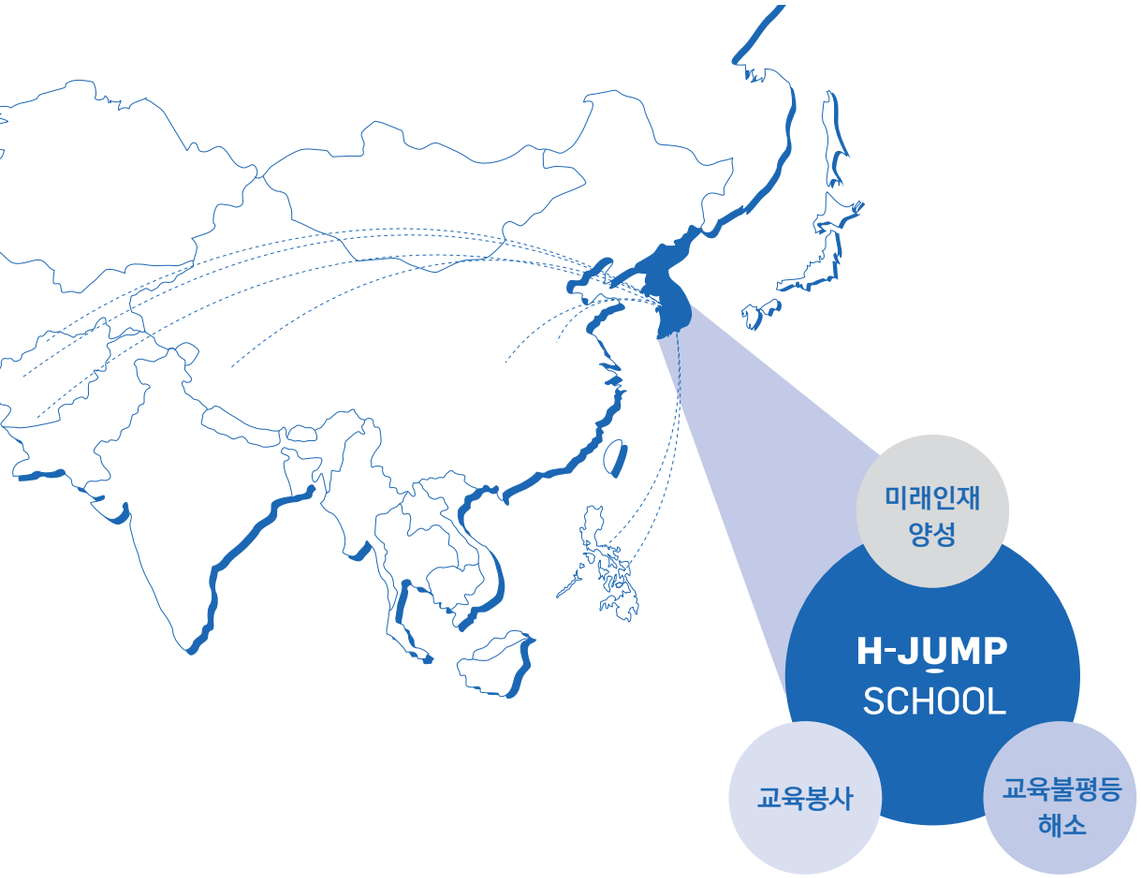
H-점프스쿨은 청소년들에게 학업만 주는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서로가 함께 커나갈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도전하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또 다른 인재들을 길러내는 H-점프스쿨 사업에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의 꿈과 다음세대의 꿈을 함께 펼칠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A. 현대차그룹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대학생인 장학샘을 만났을 때, 거부감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의 많은 봉사자들이 아동센터에 가서 한두 달 정도 봉사를 하다가 그만두곤 하죠. 그러면 청소년들은 또 상처를 받게 되고, 그 뒤에 또 교육봉사 선생님이 와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어차피 선생님들은 돌아가고 자신은 혼자 남겨질 테니까요. 하지만 H-점프스쿨은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주 2~3회 꾸준히 장학샘인 대학생들이 청소년들을 찾습니다. 또 1년의 활동기간이 끝나더라도 대학생들이 청소년들을 잊지 않고 지속해서 만남을 이어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H-점프스쿨이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지만 사회적 임팩트는 청소년과 대학생, 멘토들이 만들어가는구나 싶습니다. 장학샘들 입장에서는 활동하는 1년이 힘들고 어려웠겠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1년간 청소년들이 변화하면서 미래의 삶을 꿈꾸게 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변화에 장학샘 여러분도 큰 뿌듯함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하든 간에 그때의 감동이 본인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대차그룹도 이 사업이 성장하도록 대학생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H-점프스쿨이 만들어갈 길

“없던 길이어도, 함께 걸으면 곧 길이 된다”



5년 전, H-점프스쿨이 첫발을 내딛을 때만 해도
이 프로그램의 미래를 그리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인재를 위해 기업과 정부기관이 각자의 소중한 자원을 투자하는 **민관협력 방식**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매년 주 8시간씩 활동을 이어나가는 **장기 교육나눔 활동**
청소년들이 ‘또래어른’인 장학샘들과 호흡하며 꿈과 미래를 다지는 **롤모델 제시**
장학샘들이 교육나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인 멘토에게 삶의 값진 경험을 얻는 **나눔의 선순환**

그간 이뤄낸 H-점프스쿨의 성과를 살펴봅니다. 각 주최기관이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교육격차 해소’,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근본적인 미션에 함께 공감했고, 이에 문제해결을 위한 힘을 하나로 모았기에 발휘된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현대차그룹, 서울장학재단,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대구 서구청, 학습센터, 장학샘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왔습니다.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 그 누구도 교육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는 행보였습니다. 2013~2018년 5년간 서울과 대구, 부산 주요 대도시에서 592명의 장학샘이 청소년 2,225명을 만나 186,880시간 동안 학업과 진로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이 장학샘으로, 장학샘이 사회인 멘토로 선순환되는 다양한 성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간 각 주체기관은 청소년과 장학샘(대학생), 사회인을 멘토링으로 잇는 지역 기반의 선순환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기 다른 배경의 청소년들과 사회에 기여하려는 청년들(장학샘)이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H-점프스쿨만의 방식이었습니다. 5년 전에 H-점프스쿨이 내디뎠던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부터 H-점프스쿨이 만들어 갈 길은 더 많은 협력기관, 청소년, 장학샘, 사회인 멘토가 참여하며 단단해질 것입니다.

현대차그룹 대학생 교육봉사단 H-점프스쿨은 더욱 다양한 주체들과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교육격차 해소에 동참하고,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나아가 공정한 교육 기회가 필요한 대한민국의 여러 지역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려 합니다.

H-JUMP SCHOOL IMPACT REPORT
사람과 사람, 나아가 사람과 미래를 잇다

발행일	2018년 11월
발행처	H-점프스쿨 사무국
발행인	현대자동차그룹 사회문화팀
기획 및 편집	양소정, 전혜인
주소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헤이그라운드 G501
전화	070-4241-0501
홈페이지	www.h-jumpschool.kr | https://www.hyundai.co.kr/
디자인	㈜슬로워크
문의	info@h-jumpschool.kr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차그룹 대학생 교육봉사단 H-JUMP SCHOOL IMPACT REPORT 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H-점프스쿨 사무국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본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발행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나아가 사람과 미래를 잇다

HYUNDAI MOTOR GROUP 서울장학재단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대구광역시서구청 JUMP